



[ E B S 연 계 ]

고 전 시 가  
전 문 해 석

---

+ 필수 고전시가

---

SKYEDU 수능국어

신 한 종 T

# 만 언 사

(EBS수특 수록)

\* 이 작품은 전편(前篇) 2,916구, 속편(續篇) 594구로 된 장편가사입니다. 너무 분량이 방대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핵심정리

성격: 반성적, 고백적, 연군지사

주제: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 / 유배생활의 고달픔

## 해설

유배 가사로 분류되는 작품이다, 대전별감(大殿別監)이던 안조환(安肇煥)이 국고금을 유용비로 축낸 죄로 34세 때에 추자도(楸子島)로 유배된 사건을 작품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내용은 추자도로 유배당한 신세 한탄과 함께 자신의 과거사를 회상한다. 귀양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을 매우 애절하게 표현하여 이 작품이 서울에 전해졌을 때 궁녀들이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이것이 임금에게 알려져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일화도 있다.

이 작품은 유배 문학에 속하는 다른 가사들에 비해 자신의 체험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밝혀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이 작품의 작가는 당쟁과는 관계없이 공무상의 개인적인 비리로 유배되었기 때문에 유배 생활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나 충성심이 작품의 지배적 정서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다만 유배지에서의 궁핍한 생활상과 그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조 면에서 양반들의 점잖은 또는 의연한 태도 같은 것이 눈에 띄지 않으며, 절절한 신세 한탄에서 회한의 어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즉, 허식과 과장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성격이 강한 유배 문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평민적인 사실성을 보이는 데 근접한 작품이다.

## 호 | 작품 이해하기

도입	유배를 떠나게 된 자신의 신세 한탄
과거 회상 (인생여정)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읜 - 혼인 이후 향락적 풍류에 빠짐 - 마음을 잡고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살이하다가 잘못된 공무 처리로 유배
유배의 노정	추자도로 향하는 여정
유배 생활	추자도 사람들의 박해 - 구걸하는 삶 - 역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충성심
결사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염원

다 오르면 내려오고 가득하면 넘치나니 / 호사가 다마하여 화전중화(花田衝火 : 꽃밭에 불을 지름) 되었는지

청천백일(青天白日) 맑은 날에 뇌성벽력 급히 치니 / 삼혼칠백(三魂七魄 : 사람의 혼백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날아나서 천지인사(天地人事) 아올소냐. 여불승의(如不勝衣 : 자신의 옷을 이겨내지 못함) 약한 몸에 이십오근 칼을 쓰고 / 수쇄족쇄( 손발을 묶는 쇠사슬) 하온 후에 옥중(獄中)에 갇히오니 나의 죄 헤아리니 여산약해(如山若海) 하겠고야

- 죄를 지어 옥에 갇힘

아깝다 내 일이야 애닦다 내 일이야 평생일심(平生一心) 원하기를 충효양전(忠孝兩全 : 충과 효를 똑같이 온전하게 함)

하잖더니 / 한 번 일을 그릇하고 불충불효(不忠不孝) 다 되겠다 회서제이 막급(悔逝臍而莫及 : 일이 그릇된 뒤에 후회하여도 어찌할 수 없음)이라 뉘우친들 무엇하리 / 등잔불 치는 나비[등잔불에 뛰어난 저 나비가 / '나비'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 저 죽을 줄 알았으면[스스로 죽게 될 줄을 알았다면] 어디서 식록지신(食祿之臣)[녹봉을 받는 신하]이 죄(罪) 짓자 하라마는[나라의 돈을 받아 사는 내가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대액(大厄)[사나운 운수]이 당전(當前)[눈앞에 당도]하니 눈조차 어둡고나[눈앞이 어두워져서 / 판단을 잘못함]. 마른 쇠를 등에 지고 열화(烈火)에 둠이로다. [마른 쇠를 등에 지고 뜨거운 불 속에 뜨어들었다. 앞뒤 가리지 못하고 미련한 짓을 해 버렸구나. 그릇된 짓을 하여 스스로 화를 불렀던 자신의 행동을 빗댄 말] 재가 된들 뉘 탓이리[내가 잣데미가 되어도 내 죄 탓이어서 /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말]. 살 가망 없다마는[살아갈 면목이 없는데] 일명(一命)을 꾸이오셔[귀하게 여겨] 해도(海島 : 귀양지인 추자도)에 보내시니[이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시어 섬으로 유배 보내 주시니] 어와[아] 성은(聖恩)이야 가지록 망극(罔極)하다 [임금의 은혜가 한이 없으라 / 죽을 죄를 지은 자신을 살려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

- 공무를 잘못 처리하여 유배를 가게 된 사연(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강두(江頭)에 배를 대어[강머리에 머리를 대고] 부모친척 이별할 제 슬픈 눈물 한 소리에[크고 슬프게 우는 소리가 마치]

막막수운[넓고 아득한 슬픔을 느끼게 하는 구름이] 머무는 듯[머무는 것 같구나] 손잡고 이른 말 씀 좋이 가라 당부하니

[내 손을 잡고 일러준 말씀이 몸조심하여 안녕히 가라고 해 주시니] 가슴이 막히거든 대답(對答)이 나올소냐.

[가슴이 막혀서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네] 여취여광(如醉如狂)[취한 듯 미친 듯 /이성을 잃은 상태를 비유한 말]하여 눈물로 하직이라. 강상(江上)에 배 떠나니 이별시(離別時)가 이때로다[강물 위로 배가 떠나니 이제는 정말로 헤어지는구나]. 산천(山川)이 근심하니 부자 이별(父子離別)함이로다.[산천이 근심하는 것은 부자가 이별하기 때문이다.]

요주일성(搖舟一聲)[배를 흔드는 한 마디 소리 / 노 젓는 소리에]에 흐르는 배 살 같으니[화살같이 빨리 가니 / 원치 않는 유배길이라 배가 빨리 간다고 느낌] 일대장강(一帶長江)[화자에게 닥칠 시련]이 어느덧 가로 셔라.

[서게 되었네] 풍편(風便)에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오되[바람결에 울음소리가 텅빈 강을 따라 들려오고] 행인(行人)도 낙루(落淚)하니[지나가는 행인도 눈물을 흘리니] 내 가슴 미어진다.[화자의 심정] -[강두에 배를 대어 ~ 내 가슴 미어진다 : 유배지로 떠나오면서 부모, 친척과 이별했을 때의 일을 회상하며 그때의 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호부일성 엮더지니 애고 소리 뿐이로다

- 부모 친척과 이별하고 유배지로 가는 노정과 감상

규천고지 아모련들 아니 갈길 되올소냐 범 같은 관차들은 수이 가자 재촉하니/할 일 없어 말게올라 앞 길을 바라보니

청산은 몇 겹이며 녹수는 몇 구빈고 / 넘도록 뫼이거늘 건너도록 물이로다 석양은 재를 넘고 공산이 적막한데 / 녹음은 우거지고 두견이 제혈(啼血 : 피를 토할 듯이 울)하니 슬프다 저 새소리 불여귀는 무삼일고/네 일을 이름이나 내 일을 이름이나

가득이 헛튼 근심 눈물에 젖었어라 만수에 연쇄하니 내 근심 먹음은 듯 / 천림에 노결하니 내 눈물 뿌리는 듯 뜨던 말 재게 하니(행동이 민첩하고 빠르게 하니) 앞 참(길을 가다 쉬는 곳)은 어디 메고 / 높은 재 반겨 올리 고향을 바라보니 창망한 구름 속에 백구비거 뿐이로다

- 유배길의 애달픈 심정

의복(衣服)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南方炎天)[남쪽의 더운 날씨]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추울 때 소의 등을 덮어 주는 명석]인가. 덥고 검기 다 바리고[더운 것, 때탄 것 다 참아도] 내암새[냄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아 내 인생이 참 불쌍하게 되었구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 탄식함] 손 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나를 환영해 주던 곳에도 잘 가지 않던 서울 생활이었는데]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지금은 나를 쫓는 집에 빌붙어 있으니] 옥식진찬[좋은 밥과 진귀하고 맛있는 반찬]

어데 가고 맥반염장(麥飯鹽藏)[보리밥과 소금, 간장 - 초라한 음식] 대(對)하오며[초라한 밥상을 대하고 있다] 금의화복(錦衣華服)[비단옷과 화려한 옷 - 좋은 의복] 어데 가고 현순백결(懸鶉百結)[갈기갈기 찢어져 기운 옷 - 누더기 옷]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내가 살아 있어도 죽은 귀신 같기도 하고] 말하니 살았는가 모양은

귀신일다[말을 하니 살아 있는 것이 분명한데 모양새가 귀신같이 추하구나 / 화자의 비참한 처지를 빗댄 말].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어이없어 도로혀 웃음 나니 미친 사람되겠구나.[내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과 같구나.]

- 유배지에서의 궁핍한 생활

어와 보리 가을 맥풍(麥風)이 서늘하다. 앞산 뒷산에 황금을 펼쳤으니 지계를 벗어 놓고 앞산을 굽어보며 한가히 베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 밥 위에 보리 단술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淸風)에 취한 얼굴 깨본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리고 용정(舂精 : 곡식을 찧음)에 쓸어내어/일분(一分)은 밥쌀하고

일본(一分)은 술살하여 밥먹어 배부르고 술먹어 취한 후에 / 함포고복(含哺鼓腹 : 배불리 먹어 배를 두드리며 흥겨워 함)

하고 격양가(擊壤歌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를 부르는 양. 농가의 좋은 흥미 저런 줄 알았더라면 /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白雲)이 즐기는 줄 청운(靑雲)이 알 양이면 / 꽃 탐하는 벌나비 그물에 걸렸으랴.

- 공명을 탐낸 것에 대한 후회

사립을 젖혀 쓰고(삿갓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짚신 조여 신고),

조대(釣臺)\* (낚시터)로 내려가니 내 노래 한가하다.

원근 산천이(멀고 가까운 산과 강이) 홍일(紅日)(붉은 햇빛, 아마도 해질녘)을 띄었으니,

만경창파(넓은 바다나 강)는 모두 다 금빛이라(석양에 물든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銀鱗玉尺)\* (큰 물고기)이 절로 와 무는구나(마음을 비우니 자연스럽게 일이 풀리는군요).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取魚)가 아니로다(내가 굳이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지취(志趣)(의지와 취향)를 취함이라(낚시터에 온 이유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온 것이다.)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白鷗),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자신을 잡으러 온 나인 줄 알고)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갈매기는 신령한 동물이니 내 마음을 모를 리 없다).

평생의 곱던 입을 천 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임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마는) 그리움을 못 이기어,

수심이 첩첩하니 마음을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一竿竹)(한 조각 대나무, 낚시대)을 실없이 드렸은들(그냥 드리워 놓았거늘),

고기도 상관 않거늘(고기도 신경 쓰지 않는데) 하물며 너(백구) 잡으랴.

그래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일편단심) 보면은 아오리라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임금의 성스러운 은혜)을 갚으려니, 갚을 법도 있거니와

이 사이 일 없으니(요즈음에 한가로이 지내고 있으니)

성세(盛世)(홍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시절)에

한민(閭民)\* (한가로운 백성) 되어 너 좃아 다니려니,

날 보고 날지 마라 네 벗님 되오리라

- 무심(無心), 그리고 연군

# 만 언 사 답

(EBS수완 수록)

## 핵심 정리

갈래 : 가사, 유배가사

성격 : 사실적, 애상적, 소망적, 비유적

주제 : 유배지에서 귀양살이로 실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함

## 호 | 작품 이해하기

‘만언사’에 대한 답가. 즉 ‘만언사’와 ‘만언사답’의 관계는 본가와 답가의 관계임. 본가와 답가는 작자가 다른 경우가 보통인데, 이 작품의 경우는 ‘만언사’도 안도환이 썼고, ‘만언사답’도 안도환이 썼기 때문에, 본가와 답가의 작자가 동일 인물임. 즉 자가 쓴 글에 자기 자신이 답가를 쓴 형식임.

## 호 | 전문 해석

이보소 손님네야 설운 말 그만하고

[여보시오, 손님네야, 서러운 말 그만 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이 가리시니

[미친 사람의 말이라도 성인이 잘 가려 들으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내 말삼 들어보소

[시골 사람의 말이 무식하지만, 내 말씀 들어 보시오.]

천지인간 큰 기들에 존비귀천(尊卑貴賤) 짜여 내어

[세상 사람들의 큰 틀이 신분의 높고 낮음과 귀하고 천함에 의해 짜여 있어]

하로 한 때 근심없이 모두 즐거움이 뉘 있을꼬

[하루 동안 한 때의 근심도 없이 모두 즐겁게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을 하오시고

[하늘에도 변화가 나타나서 일식과 월식이 있고]

바다에도 진퇴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며

[바다에도 나아감과 물러감이 있어서 밀물과 썰물이 있고]  
**춘추하동 사시절에 한서온냉(寒暑溫冷) 돌아오니**  
 [춘하추동 사계절에 추위와 더위가 돌아오니]  
**부귀엔들 물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부귀에다 풀을 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인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손가**  
 [공명인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놓을 것인가.]  
**손님 팔자 좋다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손님의 운명이 좋다고 한들 늘 한결같이 다 좋을 수 있겠으며]  
**변화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할까**  
 [번성하고 화려하게 지내다가 고생을 한다고 해도 저런 고생을 언제까지 계속하겠는가.]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卿大夫) 높은 신분 귀공자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높은 벼슬아치와 높은 신분의 귀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 입어 올라갔네**  
 [섬에서의 고생을 다 마치고 임금의 은혜를 입어 (서울로) 올라갔네.]  
**이 고생 다 겪은 이 손님뿐이 아니로세**  
 [이런 고생을 겪은 사람이 손님뿐이 아니로세.]  
**그토록 설워하며 저토록 애를 씌여**  
 [그토록 서러워하며 저토록 속을 씌여]  
**귀양살이 애쓰나니 꽤히 죽어 모르자니**  
 [귀양살이를 하느라 힘이 드나니 시원하게 죽어 잊히고 싶은가.]  
**망해투사 하려는가 불식아사 하려는가**  
 [바다에 빠져 죽으려는가, 먹지 않고 굶어 죽으려는가.]  
**자문이사 하려는가 음독이사 하려는가**  
 [스스로 목을 베어 죽으려는가, 독약 먹고 죽으려는가.]  
**설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사람 반이 되고**  
 [서러운 사람이 다 죽는다면 조선 사람은 반으로 줄 것이고]  
**귀양가서 다 죽으면 섬 유배객 뉘 있을까**  
 [귀양 가서 다 죽는다면 섬에 유배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녹음방초 우거진 데 두견 슬피 우는 곳에**  
 [푸른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우거진 곳, 두견새가 슬피 우는 곳에]  
**만고영웅 문힌 산이 몇몇인 줄 모르니**  
 [오랜 옛날의 영웅들이 문힌 산이 몇이나 되는 줄을 모르는가]  
**설워 죽은 무덤 없고 애써 죽은 시체 없네**  
 [서러워 죽은 무덤 없고, 고생을 많이 해서 죽은 시체는 없는 법이네.]  
**손님 얼굴 보아하니 피골상련하였으니**  
 [손님의 얼굴을 보아하니, 가죽과 뼈가 붙을 정도로 몹시 여위었으니]  
**종이 붙은 배롱인가 두 눈 박은 수숫대인가**  
 [종이를 붙여놓은 배롱인가, 수숫대에 두 눈만 박아 놓은 것인가.]

---

십오 리 장승인가 열나흘날 제웅인가

[길쭉한 장승인가, 음력 14일의 제웅인가.]

실성한 광인인가 실혼한 병인인가

[정신 나간 미치광이인가, 혼이 나간 환자인가.]

검은 눈 희게 뜨고 북녘만 바라볼 제

[검은 눈을 하얗게 뜨고 북쪽만 바라볼 때]

밭 가운데 허수아비 새 날리는 모양이라

[밭 가운데서 허수아비가 새를 날리는 모양이다.]

부러 죽지 아니해도 병이 깊게 들었으니

[일부러 죽지 아니해도 병이 깊게 들었으니]

이 병 저 병 천만 병 중 그리운 상사병이 첫 번째라

[이 병 저 병 온갖 병 중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상사병이 가장 큰 병이다.]

천리타향 혈혈한데 한 술 물을 뉘 떠주며

[머나 먼 타향 땅에서 홀로 지내는 외로운 몸인데, 물 한 숟가락을 누가 떠주며]

화타 편작(華佗扁鵲) 다시 산들 손님 병은 어쩔 수 없네

[화타와 편작 같은 뛰어난 의사가 다시 살아온다고 해도 손님 병은 고칠 수가 없네.]

호호탕탕 뜬 혼백이 망향대를 지나갈 제

[넓고 넓은 곳에 죽은 넋이 망향대를 지나갈 때]

죽은 이는 쾌타 하나 산 부모를 어이할고

[죽은 이는 괜찮더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은 어이하겠느냐]

상명지통 깊었으니 불효 아니 막대한가

[자식 잃은 고통이 깊을테니 불효가 매우 크다]

동생 하나 어리다니 부모봉양 뉘가 할고

[동생하나 있지만 아직 어리니 부모봉양은 누가 하겠느냐]

생전불효 뉘우치며 사후불효 마자할가

[살아서의 불효를 후회하며 죽어서도 불효를 마저 할 것인가]

규리홍안 젊은 아내 그도 아니 가련한가

평생일신 조묘 곳기 손님네게 달렸다가

[손님네에게 시집와서 조상, 사당 모시기 등 평생일신을 맡겼다가]

하도 아침 이별하고 적적공방 홀로 있어

[하루아침에 이별하고 빈 방에 홀로 있어]

지금까지 살았기는 형여 다시 만나볼가

아침까지 받겨 들고 저녁 등화 위로하여

어린 아들 쓰다듬어 눈물 흘려 하는 말이

너 아바님 언제 올고 오시거든 절하여라

맷힌 근심 살뜰 간장 촌촌히 썩이면서

의복 보선 지어 두고 의불의를 보랴하고

[남편을 위해 의복과 버선을 지어두고 올고 그름을 떠나]



삼시출망 하는 눈이 뚫어지게 되었다가

[항상 뜨고 있는 눈이 뚫어지게 되었다가]

명정삼선 앞세우고 검은 관이 올라가면

[손님네가 죽어서 세운 배를 앞세워 검은 관이 올라가면]

바라는 데 끊쳐지고 일신 아조 마치나니

[손님네를 기다리던 바람이 완전히 끊어지고 온 몸이 완전히 끝나니]

오월비상 슬픈 눈물 구소운간 사무치리

[오월에 날아오르는 슬픈 눈물이 구름에 사무치리]

유명 다른 혼백인들 쾌한 마음 있을손가

[손님네가 죽고난 후의 혼백인들 마음이 즐겁겠는가]

그 때에야 뉘오친들 죽은 사람 다시 살가

염라왕께 원정하고 인간환생 설사한들

[염라대왕께 하소연하여 환생을 설사한다고 하더라도]

부모 어찌 알아보며 흉안박명 할 일 없네

[부모를 어찌 알아보며 손님 아내의 박명한 운명도 그대로다]

천사만사 헤아리고 사생지간 가리어서

죽은 후에 편타 말고 살아 고생 한 때 하소

[죽지말고 살아서 고생하는 것이 낫소]

인간오복 수위선은 손님네도 모르시나

[인간오복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워 손님네도 모르시겠지만]

그릇한 일 뉘우쳐서 애달프다 너무 마소

[잘못한 일(인간오복을 지키지 못한 일)을 후회하느라 너무 애달파 하지 마소]

인개성인 아니어든 진선진미 쉬울손가

[성인이 아니라면 완전함을 갖추는 것이 쉽겠소(설의)]

기왕은 불간하니 내자를 가취로다

[지나간 것은 상관말고 앞날을 능히 취해야하오]

내 인사를 닦은 후에 하늘 명을 기다리소

청과청비 하오시니 손님 고액

[성품이 맑고 깨끗하시니 손님의 고생도]

대 끝에서 삼년이니 잠간 조금 기다리오

[대나무 끝에서도 삼년을 견딘다는데 당신도 조금 기다리오]

어와 손님네야 다시 내 말 들어보소

그도 저도 다 바리고 망극천은 잊으실가

[이런 일 저런일 다 버려두고 임금의 은혜는 잊으실 것이오?]

은린옥척 낚아다가 해소함도 천은이요

[물고기 낚다가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도 임금님 은혜요,]

나무 베어 불 때어서 온숙함도 천은이요

[나무로 불을 피워 따뜻하고 편안하게 자는 것도 임금님 은혜요,]

북창청풍 누웠을 제 한가함도 천은이요

[북쪽 창문 맑은 바람에 누워있을 때의 한가함도 임금님 은혜요,]

만경창파 바람불 제 장관함도 천은이요

[만경창파 바람이 풀 때의 멋진 경관도 임금님 은혜요,]

나아가도 천은이요 물러가도 천은이라

[나아가도, 물러가도 다 임금님 은혜요.]

손님 몸 죽으시면 큰 죄가 돌이로세

부모를 잊으시니 불효도 되려니와

천은을 또 잊으니 불충이 아니런가

한 죄도 어렵거든 두 죄를 다 지오니

아모리 혼백인들 무엇이 되려시나

돌에가 의지하여 석귀가 되려시나

물에가 의지하여 수귀가 되려시나

흙에가 의지하여 토귀가 되려시나

여기 저기 의지 없어 뜯귀가 되려시나

이것 저것 일흠 없어 잡귀가 되려시나

이렇저렇 빌어 먹어 걸귀가 되려시나

아모 것도 못 먹어서 아귀가 되려시나

두역신이 되려시나 독갑이가 되려시나

적막공산 굶은 비에 우는 귀신 되려시나

어와 손님네야 마음을 고쳐 먹어

죽잔 말 다시 말고 살아 할 일 헤어 보소

손님 풀려 가오실 제 서울 구경 나도 가세

강두에 배 달일 제 무슨 배를 달일는고

[손님네가 풀려나 손님대를 위한 배가 강두에 달을 때 무슨 매가 올까]

독대선에 황대선에 먼정이에 대중선에

어망선에 거북선에 장도리에 거루선에

[배의 종류 열거]

동서남북 부는 바람 무슨 바람 부울는고

[배를 끌어줄 바람은 무슨 바람이 불까]

놉바람에 늦바람에 하니바람 마파람에

[바람의 종류 열거]

다른 바람 부지 말고 남병산 칠성단에

제갈공명 비던 바람 동남으로 일어나서

[다른 바람은 불지 말고 제갈공명이 빌던 동남풍이 일어나서]

반공에 뜬 구름을 서북으로 이동할 제

지곡총 배 띄워라 어사와 돛 달아라

고예승류 한가로이 무삼 노래 부르실고

[바람에 물살을 타고 배가 지나갈 때 한가로이 무슨 노래를 부르실 것인가]

상사별곡 춘면곡은 이별조라 마오시고

어부사에 말을 섞어 손님 지어 부르시고

광관일성에 산수가 푸르렀다

[경치를 구경하는 가운데 산수가 푸르렀다]

**배에 앉은 저 어옹이 한 어깨 높았세라**  
 [배에 앉은 저 늙은이도 흥겹다]

**해불양파하니 성인의 시절이노**  
 [바다가 평안하니 성인의 시절(임금님의 선정이 미치는 시절)이구나]

**산하의 굳음이여 만만세지 무궁이라**  
 [신하의 지조와 절개여 영원히 끝이 없다]

**금능에 배를 띄워 술집으로 향하는 듯**  
**추칠월 기망야에 소동파의 놀음인 듯**  
**동정호 칠백리에 악양루 어데매노**  
 [이태백이 놀던 동정호 칠백리의 악양루가 어디냐(여기가 낫다)]

**이수가 증분하니 백로주 여기로다**  
 [이수(물을 다스림)가 잘 되고 있으니 깨끗하고 맑은 술이 여기 있다]

**중류격증 생각하니 옛 일도 역력하다**  
 [강 중간에서 노를 두드리며 노래를 하니 옛 일도 역력하다]

**하우씨 치홍수는 공업도 크시었다**  
 [하우씨의 홍수를 다스리는 사업도 크시었고]

**황룡이 부주하니 성인을 모르던가**  
 [황룡이 배를 띄우니 성인을 모르는가]

**소상강 큰 바람은 이비의 신령이라**  
 [소상강 큰 바람은 소상강의 신(이비)이 일으켰는데]

**진황의 사오나옴 자기산은 무삼 일고**  
 [그것으로 진시황이 강을 건너지 못해 산의 나무를 다 베어버린 것은 무슨 일이고]

**범여의 오호주와 장한의 강동감은**  
 [월나라 재상 범여는 오왕 부차를 멸망시켜 부귀를 누렸고, 장한은 진승 오관의 난을 진압하고 항우에게 항복했다가 유방에게 패하고 자살함. 즉, 범여는 명철보신을 했고, 장한은 하지 못했다는 의미]

**명철보신 하였노라 착한 체 자랑마소**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자기 몸을 보전하소. 착한 척 하지 말고.]

**임군을 싫담이니 옳은 일 아니로세**  
 [임금을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후세에 유명하나 내 아니 부러하리**  
 [후세에 유명해도 나는 부럽지 않다]

**문노라 동남동녀 불로초 캐었느냐**  
 [진시황이 동남동녀를 보내었지만 불로초를 캐지 못했다]

**있는 데 나도 가서 한 포기 캐어다가**  
**구중궁궐에 우리 임께 드리웁고**  
**남은 것 가져다가 복당에 올리리라**  
 [임금님께 바치고 복당(어머님)께 바치리라]

**범급전산 홀후산하니 수로천리 지척일다**

---

배 부쳐라 돛 지어라 육지산천 둘러 보소  
울 제 울고 보던 뉘를 오늘 웃고 보리로다

[유배를 떠날 때 울고 보던 산을 오늘은 웃으며 보리라]

기쁜 흥 못 이기어 명산대찰 찾으실 제  
배진의 달마산은 미황사가 대찰(큰 절)이요  
영암의 월출산은 도갑사가 큰 절이라  
주현군읍 지나가며 남방풍경 열람하니  
건지산을 다시 보고 계룡산을 고쳐 지나  
경기남산 반가와라 손님 보고 마조 웃네  
동작강 배 저어라 십리사장 얼른지나  
돌모로 지나치고 청파다리 너머 들어  
송례문 들어가니 오색구름 어린 곳에  
기린봉황 넘노는 듯 단기도 반공하다

[봉황이 넘노는 것처럼 임금님의 깃발도 공중에 걸리었다]

주야불망 바라면서 그리던 곳 아니런가  
전세 불러 고두하고 만세무궁 축수하네

[감사한 마음으로 만세무궁을 비네]

장안시장 준비하고 대평기상 변화하다

[서울 시장은 분주하고 태평한 기운은 변화롭다]

방방곡곡 돌아 드니 손님집이 거기로세  
부모처자 마조 나와 손을 잡고 반겨하니  
울음 글에 웃음 나고 지낸 고생 허사로다  
갈충보국 힘을 쓰니 부모봉양 절로 나네

[충성을 다하여 임금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힘을 쓰니 부모님 봉양은 절로 되네]

백부은정 잊지 말고 귀한 아들 성취하여

[아버지로서의 정을 잊지 말고 아들을 장가 보내서]

조강지처 한가지로 영화부귀 누리실 제  
이때 고생 이 설움을 잊지말고 외왔다가  
잡잡고 웃으면서 옛 말씀 하오실 제  
그 때 내 말 생각하고 상풍 올라 하오시리  
이 말 저 말 시골 말이 열되들이 정말이라

[시골내기(화자)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

# 농가월령가

(EBS수완 수록)

\* 이 작품은 너무 분량이 방대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4월령과 8월령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핵심 정리

갈래 : 월령체 가사, 장편 가사

성격 : 교훈적, 계몽적

주제 : 단과 절후에 따른 농가(農家)의 일과 풍속 소개

## 호 | 작품 이해하기

이 작품은 농가에서 일 년 동안 해야 할 농사에 관한 실천 사항과 철마다 다가오는 풍속,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달에 따라 읊은 월령체(달거리) 가사이다. 전체 구성은 '절기 소개 → 그 달에 대한 작가의 정서 → 농사일 → 세시 풍속' 순으로 각 장이 동일한 구성 방식을 취하며, 서사에서 12월령 까지 모두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을 보면, 농사짓는 시기를 강조하고, 농구 관리와 거름의 중요성, 그리고 작품, 과목, 양잠, 양축, 양봉, 산채, 약초, 김장, 누룩, 방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사 내용과 세배, 널뛰기, 율놀이, 달맞이 더위팔기, 성묘, 천렵, 천신(薦新) 등의 민속적인 행사나 농촌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농업 기술을 음률에 맞춰 흥겹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점에서 농업 기술의 보급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민속학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본문에 수록된 부분은 '정월령'으로, 정월의 절기인 입춘과 우수를 소개하고, 농부들에게 일 년 농사 준비를 잘 해서 농사일에 힘쓸 것을 권하고 있으며, 정초의 설날 풍속과 보름날의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절기 소개는 감탄형 종결 어미 '~로다'를 사용하고 있고, 농사일은 명령형 종결어미 '~하라, ~하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작품은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나 풍속을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지만,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세시 풍속을 기록해 놓은 월령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짜임새가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다.

<사 월 령>

사월이라 맹하(孟夏-초여름) 되니 입하(立夏) 소만 절기로다.

[사월이라 초여름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비 온 끝에 별이 나니 일기도 청화하다.

[비 온 끝에 별이나니 날씨도 좋아라]

떡갈잎 퍼질 때에 뻐꾹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꾀꼬리 소리한다.

[떡갈잎 퍼질 때에 뻐꾹새 자주 울고, 보리이삭 패어나니 꾀꼬리 소리가 난다]

농사도 한창이요 잠농(蠶農)도 방장(方長-한창)이라

[농사나 누에 치는 일이 이제 막 한창이다]

남녀노소 골몰하여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대사립을 녹음에 담았도다.

[집에 있을 틈이 없어, 고요한 가운데 사립문이 녹음 속에 달혀 있도다.]

면화를 많이 가소, 방적의 근본이라.

[면화를 많이 심소, 길쌈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사이 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음)을 적게 하소,

[수수나 동부, 녹두, 참깨 밭에 간작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떡갈나무를 꺾어 거름을 만들 때 풀을 베어 섞어 하소.]

무논을 써을이고 이른 모 내어 보세.

[무논을 써래질하여 이른 모를 심어 보세.]

농량(農糧)이 부족하니 환자(還子-가을에 갠기로 하고 봄에 관청에서 꾸어가는 곡식) 타 보태리라.

[추수 때까지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 환자를 얻어 보태리라.]

한 잠 자고 이는 누에 하루도 열두 밥을 밤낮을 쉬지 말고 부지런히 먹이리라.

[한 잠 자고 일어난 누에에게 하루에도 열두 차례의 밥을 밤낮을 가지리 않고 부지런히 먹이리라.]

뽕 따는 아이들아 훗그루 보아 하여(보살펴 주어), 고목은 가지 찍고 햇잎은 제쳐 따소.

[뽕잎 따는 아이들아, 훗그루를 잘 보살펴서, 오래 묵은 나무는 가지를 찍어 버리고 햇잎은 잘 제쳐서 따소.]

질레꽃 만발하니 적은 가물 없을소나.

[질레꽃이 만발하는 계절이 되었으니 적은 가물이 없겠는가.]

이때를 승시(乘時-때를 탐)하여 나 할 일 생각하소.

[이 때를 당해서 내가 할 일을 생각하소.]

도랑 쳐 수도(水道) 내고 우루처(雨漏處) 개와(改瓦-지붕을 고침)하여 음우(陰雨)를 방지하면 훗근심 더 없나니

[도랑을 만들어 물길을 내고 비가 새는 곳은 지붕을 고쳐서, 비 오는 것에 대비하면 뒷근심이 더 없다네]

봄날이 필무명을 이 때에 마전(표백)하고 베 모시 형세대로 여름 옷 지어 두소.

[봄에 짠 무명을 이 때에 표백하고, 삼베와 모시로 형편에 따라 여름 옷을 지어 두소.]

벌통에 새끼 나니 새 통에 받으리라.

[벌통에 새끼를 치니 새 통에 분가를 시키리라.]

천만이 일심하여 봉왕(蜂王-왕벌)을 옹위하니, 꿀 먹기도 하려니와 군신분의(君臣分義) 깨달도다.

[천만 마리의 벌이 한 마음으로 왕벌을 옹위하니, 꿀을 먹기도 하겠지만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깨닫게 되  
다.]

**파일(八日)에 현등(懸燈-등을 켜놓음)함은 산촌에 불긴(不緊-긴요하지 않음)하나 느티떡 콩찌니는 제때의  
별미로다.**

[사월 초파일에 등불을 켜 놓는 일이 산골 마을에서 긴요한 것은 아니나, 느티떡과 콩찌니는 계절에 맞는  
별미로다.]

**앞 내에 물이 주니 천렵을 하여 보세.**

[앞 시내에 물이 졸었으니 물고기를 잡아 보세,]

**해 길고 잔풍(潺風-잔잔한 바람)하니 오늘 놀이 잘 되겠다.**

[낮이 길고 바람이 잔잔하니 오늘 놀이 잘 되겠다.]

**벽계수 백사장을 굽이굽이 찾아가니 수단화 늦은 꽃은 봄빛이 남았구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백사장을 굽이굽이 찾아가니, 늦게 핀 연꽃에는 봄빛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촉고(눈이 촉촉한 그물)를 둘러치고 은린옥척(크고 싱싱한 물고기) 후려내어 반석에 노구 걸고 솟구쳐 끓여  
내니 팔진미 오후청(五侯鯖)을 이 맛과 바꿀소냐.**

[그물을 둘러치고 싱싱한 물고기를 잡아 내어, 편편한 바위에 솥을 걸고 솟구쳐 끓여 내니, 팔진미나 오후  
청이라도 이 맛에 비길 수가 있겠느냐]

## <팔월령>

**팔월이라 중추(仲秋)되니 백노(白露) 추분 절기로다.**

[팔월 중추가 되니 백로와 추분이 있는 절기로구나]

**북두성(北斗星) 자로 도라 서편을 가르치니,**

[북두칠성이 왼쪽으로 돌아서 서쪽을 가리키니]

**선선한 초석(朝夕) 기운 추의(秋意)가 완연하다.**

[서늘한 아침 저녁 기운은 가을다운 분위기가 뚜렷하구나]

**귀뚜라미 말근 소리 벽간(壁間)의 들거고나.**

[귀뚜라미 맑은 소리가 벽 사이에서 들려오는구나]

**아침의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이 내려서,]

**백곡(百穀)을 성실(成實)하고 만물을 재촉하니**

[온갖 곡식을 여물게 하고, 만물의 결실을 재촉하니,]

**들 구경 돌아보니 힘드린 날 공생(功生)하다**

[들을 구경하며 돌아보니 힘을 들인 일의 공이 나타나는구나.]

**백곡의 이삭 패고 여물 들어 고개 숙어,**

[백곡의 이삭이 패고 열매가 익어 고개 숙이니,]

**서풍(西風)의 익는 빗춘 황운(黃雲)이 이러난다.**

[서풍이 불어와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의 물결이 일어난다]

**백설 갖흔 면화송이 산호(珊瑚) 갖흔 고추 다래**

[백설같은 목화와 산호처럼 붉은 고추다래를]

첨아의 너러시니 가을 벗 명낭하다

[처마에 널었으니, 가을 별이 맑고 밝구나]

안팎 마당 닷가 노코 발채 망구 장만하쇼.

[안팎 마당 쓸어놓고 발채와 망구(옹구)를 마련하시오]

\*발채 - 싸리로 삼태기같이 만들어 지게에 얹고 물건을 담아서 지는 것

\*망구 - '옹구'의 옛말. 소의 길마 위에 얹는 망태기처럼 생긴 것.

면화(綿花) 따난 다락기의 수수 이삭, 콩가지오.

[목화송이 따는 다래끼에 수수 이삭과 콩깍지가 풍성하오]

나무꾼 도라오니 머루 다래 산과(山果)로다.

[나무꾼이 돌아오니 머루와 다래 등 산에서 나오는 과실이 풍성하구나]

뒤동산 밤 대추는 아해들 세상이라.

[뒤동산 밤과 대추는 아이들 차지다]

아람 모아 말니여라, 철 대야 쓰게 하쇼.

[알밤을 모아서 말려라, 명절 때에 맞추어 쓰게 하시오]

명지(明晷)를 끈허 내여 추양(秋陽)에 마전하고,

[명주를 끊어 내어 가을 별 아래에 넣고 \*마전하고 - 햇별에 바래고, 표백하고]

쪽 디리고 잇 디리니 청홍(靑紅)이 색색이라.

[남빛 물을 들이고, 붉은 빛 잇물을 들이니 푸르고 붉은 빛같이 색색이로구나]

부모님 연만(年晩)하니 슈의(수衣)를 유의하고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니 수의를 마련하고]

그 남아 마루재아 자녀의 혼슈(婚需)하세.

[나머지는 재단하여 자녀들의 혼수감으로 마련하세]

집 우희 굿은 박은 요긴한 기명(기명)이라.

[지붕 위 익은 박은 요긴한 그릇이 되리라. \* 굿은 - 굶은]

덥사리 뷘을 매아 마당질의 쓰오리라.

[대싸리로 비를 만들어 타작하는 데 사용하리라]

참깨 들깨 거둔 후의 중오려 타작하고

[참깨 들깨를 수확한 후에 울벼를 타작하고. \*중오려 - 꽤 일찍 익는 벼]

담배 줄 녹두 말을 아쇠야 작전(作錢)하랴.

[담뱃줄, 녹두말을 아쉬운 대로 팔아 돈을 장만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장 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쇼.

[장 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 것도 잊지 마쇼]

북어괘 젓조기를 추석 명일(明日) 쇠아 보세.

[북어괘, 젓조기를 준비해서 추석 명일을 지내 보세]

신도쥬(新稻酒) 오려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햅쌀로 빚은 술과 울벼로 만든 송편, 박나물과 토란국을 만들어]

선산(先山)의 제물하고 이웃집 난화 먹세.

[선산에서 제사지낼 때 제물로 쓰고 나머지는 이웃집과 나누어 먹세]

며느리 말의 바다 본집에 근친(覲親)갈 제,



[며느리가 휴가를 얻어 친정에 부모님을 뵈러갈 때]  
**개 잡아 살마 건져 떡고리와 술병이라.**  
[개를 잡아 삶아 건져 놓고 떡고리와 술병을 갖추어 (뵈러간다)]  
**초록 장옷 반물 치마 장속(裝束)하고 다시 보니,**  
[초록빛 장옷과 남빛 치마로 단장하고 다시 보니]  
**여름지에 지친 얼굴 쇼복(蘇復)이 되얏나냐.**  
[농사짓기에 지친 얼굴에 원기가 회복되었느냐?]

**중추야 밝은 달에 지기(志氣) 펴고 놀고 오쇼.**  
[추석날 밝은 달이 뜨는 좋은 때에 마음을 활짝 펴고 놀다 오쇼]  
**금년 할 일 못 다하나 명년 계교(計較) 하오리라.**  
[금년 할 일을 다하지 못했으나, 명년 계획을 세우리라. \*계교 - 맞나 안 맞나 견주어 봄]  
**밀재 뷔여 더운가리 모맥(牟麥)을 추경(秋耕)하세.**  
[삼백초를 베어 내고 (소나기가 내리면) 더운같이 하고, 밀과 보리 농사를 위해서는 가을같이하세.  
\* 더운가리 - 날이 가물다가 내린 소낙비로 논을 가는 일]  
**곳곳치 못 닉어도 급한 대로 짓고 갈쇼.**  
[끝마다 완전히 익지 못하여도 급한 대로 걷고 갈아 보쇼]  
**인공(人功)만 그러할까 텨시(天時)도 이러하니,**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만 그러할까, 하늘의 때도 이러하니]  
**반각(半刻)도 쉴 때 업시 맞츠며 시작나니.**  
[잠시도 쉴 때가 없이 마치면 또 일을 시작하나니]

# 춘면곡

(EBS수완 수록)

연대 : 조선 후기

갈래 : 애정가사, 평민가사, 가창가사

성격 : 애상적, 서정적

주제 :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 남성화자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음

## 특징

- ① 남성화자
- ② 자연물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

## 호 | 작품 이해하기

이 작품은 남성화자를 내세워 임과 이별하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서생인 화자는 야유원에서 미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끝내 이별한다. 이별의 한으로 인해 슬퍼하던 화자는 겨우 잠에 들어 꿈 속에서 임과 재회하지만 꿈에서 깨어 임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다. 이별에 아파하며 재회를 소망하던 화자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힘써 공부한 뒤에 임과 재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 호 | 전문 해석

춘면(春眠)을 느지적여 죽창(竹窓)을 반기(半開)홀

[봄잠을 늦게 깨여 대나무 창을 반쯤 여니]

녕화(庭花)난 작작(灼灼)흔데 가는나뉘 머무논 듯

[들의 꽃은 활짝 피어있고 가던 나비는 꽃위를 머무는데]

안류(岸柳)논 의의(依依)하여 성근넉랄 썩여세라

[강기슭의 버들은 우거져서 물가에 띄여 있구나]

창전(窓前)에 덜권술를 일이삼배 먹은후에

[창전에 덜권술을 일이삼배 먹은 후에]

호탕한 미친흥을 부질업시 자아너여

[호탕한 미친흥을 부질없이 자아내여]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아유원(冶遊園) 차자가니  
 [백마타고 금채찍 들고 흥청망청 놀수 있는 곳을 찾아가니]  
 화향(花香)은 습의(濕衣)하고 월식(月色)은 만정(萬庭)흔데  
 [꽃향기는 옷에 배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광객(狂客)인 듯 취객(醉客)인 듯 흥을 겨워 머무는 듯  
 [광객인 듯 취객인 듯 흥에 겨워 머무는 듯]  
 퇴회(徘徊) 고면(顧眄)하여 유정히 섰노라니  
 [이리저리 거닐다면서 기웃거리다가 유정히 섰노라니]  
 취와주란(翠瓦朱欄) 뚝문집이 녹의홍상(綠衣紅裳) 일미인(一美人)이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있는 높은집에 연두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사창(紗窓)을 반키(半開)하고 옥안(玉顏)을 잠간드러  
 [비단으로 가리운 창을 반쯤 열고 고운 얼굴을 잠깐 들어]  
 웃는 듯 찡기는 듯 교퓌(嬌態)하고 마자드러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요염한 자태로 맞아주네]  
 추파(秋波)랄 암주(暗注)하고 녹의금(綠綺琴) 빛기안고  
 [은근한 눈빛을 하고 녹기금을 비스듬히 안고]  
 청가 일곡(淸歌一曲)으로 춘의를 자아너니  
 [맑고 청아한 노래로 봄흥취를 자아내니]  
 운우 양덕상(雲雨陽臺上)에 초몽(楚夢)이 다정(多情)하다  
 [운우 양대상에 초몽이 다정하다]  
 사랑도 되지않고 연분(緣分)도 되지않다  
 [사랑도 그지않고 연분도 그지않다]  
 이 사랑 이연분(緣分) 비길데 전혀없다  
 [이 사랑 이 연분 비길데 전혀없다]  
 너는 죽어 곳치되고 나는죽어 나뉘되여  
 [너는 죽어 꽃이되고 나는 죽어 나비가 되어]  
 삼춘(三春)이 디진토록 썩나사지 마자터니  
 [봄이 다 지나가도록 떠나살지 않을려고 했더니]  
 인간에 말이만코 조물도차 식음하야  
 [인간이 말이 많고 조물주도 시기하여]  
 산영이 미흡하야 익달을손 니별이라  
 [새정을 다퍼지 못하고 애달프지만 이별이라]  
 청강(淸江)에 노던원앙 우렁네고 썩나는 듯  
 [맑은 강에 놀던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광풍(狂風)에 놀른봉접(蜂蝶) 가다가 돌치는 듯  
 [거센 바람에 놀란 벌과 나비 가다가 돌치는 듯]  
 석양은 다져가고 덩마(停馬)난 자로울제  
 [석양은 다져가고 매여둔 말은 졸고 있을 때]  
 나삼을 부여잡고 암연(暗然)이 여훤후에  
 [나삼을 부여잡고 침울한 마음으로 이별한 후에]  
 슬픈노래 긴 한숨을 벗삼아 도라오니  
 [슬픈노래 긴 한숨을 벗삼아 돌아오니]  
 이제 이임이야 생각하니 원슈로다

[이제 이 님이야 생각하니 원수로다]  
**간장이 다석그니 목숨인들 보전하라**  
 [간장이 모두 썩으니 목숨인들 보전하겠는가]  
**일신(一身)에 병이되니 만사(萬事)에 무심하여**  
 [몸에 병이드니 모든 일에 무심해져]  
**쇠창을 구지닷고 섬서이 누어스니**  
 [서창을 굳이닫고 어색하게 누워 있으니]  
**화용 월티(花容月態)는 안중(眼中)에 심연하고**  
 [꽃같은 얼굴에 달같은 모습은 눈앞에 삼삼하고]  
**분벽 사창(粉壁紗窓)은 침변(枕邊)이 여귀로다**  
 [아름다운 여인이 거처하는 방은 침변이 여기로다]  
**하엽(荷葉)에 노적(露跡)하니 별누(別淚)를 뿌리는 듯**  
 [연잎에 이슬이 맺히니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듯]  
**류막(柳幕)의 연롱(煙濃)하니 유한(遺恨)을 먹음은 듯**  
 [버들막에 연기끼니 맺힌 한을 머금은 듯]  
**공산 야월(空山夜月)의 두견이 슬피울제**  
 [적절한 산에 달은 밝고 두견새는 슬피우는데]  
**슬푸다 저석소리 내말갓치 불여귀라**  
 [슬프구나 저 새소리 내말같은 두견새라]  
**삼경에 못든잠를 사경말리 비러드니**  
 [삼경에 못든 잠을 사경에 간신히 드니]  
**상사혹든 우리님을 썬가온데 잠간보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우리님을 꿈속에서 잠간 보고]  
**천수만한(千愁萬恨) 못다일너 일장호접(一枝蝴蝶) 호터지니**  
 [천가지 시름 만가지 한 못다 이루는 부질 없는 꿈이되니]  
**아릿자온 옥빈홍안(玉鬢紅顏) 것헤 얼핏 안젓는 듯**  
 [아리따운 미인 곁에 얼핏 앉았는데]  
**어화 황홀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어화 황홀하다 꿈을 생시로 삼고 싶구나]  
**무침허희허야 밤비니러 바라보니**  
 [잠자리를 걸어차고 바빠 일어나 바라보니]  
**운산(雲山)은 첩첩허야 천리안(千里眼)을 가리왔고**  
 [구름긴 산 첩첩히 천리안을 가리왔고]  
**호월(皓月)은 창창허야 님향심에 비초엿다**  
 [흰달은 창창하여 님을 향한 마음에 밝게도 비취 주는구나]  
**어화 너일이야 나도모를 일이로다**  
 [어화 내일이야 나도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허그리 못보는고**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찌그리 못보는고]  
**약슈 삼천리 머단말을 이룬터랄 니르도다**  
 [비내리는 머나먼 길을 멀다고 하는 것은 이런 때를 두고 이르는 것이구나]  
**가약(佳約)은 묘연허고 세월은 여유허여**  
 [좋은 언약은 묘연하고 세월은 덧없는데]

엇그데 이월꽃지 녹안변(綠岸邊) 불거터니  
 [엇그제 이월꽃이 푸른기슭에 붉었더니]  
 그덧씩 훌훌하여 낙엽이 추성(秋聲)일다  
 [그사이 재빠르게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식벽달 지샅적에 외기러기 울어널제  
 [새벽달 지샅적에 외기러기 울 때]  
 반가운 님의소식 형여올가 바라보니  
 [반가운 님의 소식 형여올까 바라보니]  
 창망(蒼茫)흔 구름받게 빛소릭 쏘이로다  
 [아득한 구름과 빛소리 쏘이구나]  
 지리하다 이니별을 언제만나 다시볼까  
 [지리하다 이 이별을 언제 다시 만나볼까]  
 산두(山頭)에 편월(片月)되여 님의곶헤 빛최고져  
 [산머리에 조각달 되여 님의 곶에 비치고 싶구나]  
 석상에 오동되여 님의무릎 베어보랴  
 [석상의 오동되여 님의 무릎 베어보랴]  
 옥상 도량에 제비되여 날고지고  
 [옥상 조량에 제비되여 날고지고]  
 옥창 잉도화에 나뉘되여 날고지고  
 [옥창 잉도화에 나뉘되여 날고지고]  
 태산이 편지되고 금강이 다마르나  
 [태산이 편지되고 금강이 다마르나]  
 평칭 슬픈회포 어디를 가을흐리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끝이 있으랴]  
 셔중 유옥안(書中有玉顏)은 나도잠간 드러쨌니  
 [책을 읽자하니 미인의 얼굴이 책 위에 어려서 나도 잠간 들었더니]  
 마음을 고쳐먹고 강기(慷慨)를 다시닉여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가듬어서]  
 장부(丈夫)의 공명(功名)을 일노쫓차 알리로다  
 [장부의 공명을 세상에 알리로다]

# 갑민가

(EBS수완 수록)

연대 : 조선 정조 때

종류 : 평민가사

발표 : 조선시대

운율 : 3.4조와 4.4조가 섞인 가사체. 운문체

주제 : 학정에 시달리는 갑산 백성들의 참상

특징 :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함.

대화의 형식을 취함

조선 후기 가사 작품으로서, 민중들의 사회 비판 의식이 반영됨

## 호 | 작품 이해하기

실상은 부사 성대중의 선정을 찬양한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갑산 백성들의 학정에 시달리는 참상을 묘사함

작자는 성대중(1732-1812)이 함경도 북청부사로 있을 때, 이웃 고을인 갑산에 살던 사람이다. 작품의 내용은 도망하는 갑산 군사들에게 어디로 가나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니 그대로 참고 살라는 권면으로 시작하여, 집안의 내력을 노래하고 부역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로 세간을 모두 팔아 관아에 바치고 학정에 아내마저 잃고 집은 폐가가 되었으나, 왕의 은택이 미치지 못함을 한탄하며 북청부사의 선정을 기대하여 그곳으로 도망친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표현 수법은 정철의 속미인곡이나 박인로의 '누항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대화형식으로 실상은 부사 성대중의 선정을 찬양한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갑산 백성들의 학정에 시달리는 참상을 묘사하고 있다.

<갑의 대사>

어저어저 저기 가난 저 사람아  
어이어이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行色) 보아니 군사도망(軍士逃亡) 네로구나  
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도망 너로구나  
(네 모습을 보니 병역 기피 도망자로구나)

노상(腰上)으로 볼작시면 뵈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위로 보면 깃만 남은 베적삼을 입고 있고)

허리 아래 구버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허리 아래 굽어보니 현 잠방이 노닥노닥  
(허리 아래로 굽어보면 현 훌바지가 너덜너덜하구나)

곱장할미 압희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굽은 할미 앞에 가고 절뚝이는 이는 뒤에 간다  
(허리 굽은 할미는 앞에 가고 다리 절뚝이는 이는 뒤에 간다.)

십니(十里) 길을 할내 가니 몇니 가서 업쳐디리  
십리 길을 하루에 가니 몇 리 가서 얹어지리  
(십리 길을 하루 걸러 가니 몇 리 못가고 넘어지리라.)

내 고을의 양반(兩班) 사람 타도타관(他道他官) 온겨 살면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타관 옮겨 살면  
(자기 고을에 살던 양반이 다른 도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살면)

천(賤)이 되기 상사여든 본토군정(本土軍丁) 슬타하고  
천이 되기 예사거든 본토군정 싫다 하고  
(천하게 되기 예사인데 자기 고을 병역행정 싫다고)  
\*군정 : 군역으로 군사 행정 가리킴)

자네 또한 도망(逃亡) 하면 일국일토(一國一土) 한 인심(人心)의  
자네 또한 도망가면 일국일토 한 인심에

(자네 또한 도망가면 한 나라 땅의 한 인심에)

근본 숨겨 살녀한들 어데 간달 면할손가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할 것인가**

(근본 숨기고 살려고 해도 어디 간들 천하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네 사던 곳의 아모케나 뽕희 박여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

(차라리 네가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 박고)

칠팔월의 채삼(採蔘)하고 구십월(九十月)의 돈피(皮) 잡아

**칠팔월에 인삼 캐고 구시월에 돈피 잡아**

(칠팔월에는 인삼 캐고 구시월에는 돈피 구하여)

\*채삼 : 인삼 캐기 \*돈피 : 담비 가죽

공채신역(公債身役) 갚흔 후의 그 남저지 두엇다가

**공채신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엇다가**

(군역과 부역을 갚은 후에 그 나머지는 두엇다가.)

\*공채신역 : 나라에서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

함흥북청(咸興北靑) 흥원(洪原) 장사 도라드러 잠매(潛賣)할 제

**함흥북청 흥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함흥과 북청, 흥원 장사에 돌아들어가 몰래 매매할 때)

후가(厚價) 받고 파라내여 살기 도흔 너른 곳의

**후한 값 받고 팔아서 살기 좋은 너른 곳에**

가사던토(家畝田土) 곱쳐 사고 가장즙물(家庄汁物) 장만하여

**집과 논밭 다시 사고 집안살림 장만하여**

\*가장즙물 : 집안살림

부모처자 보전(保全)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문

**부모처자 지키고 새 즐거움을 누리려무나**

<을의 대사>

어와 생원(生員)인디 초관(哨官)인지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대 말삼 그만두고 이 내 말삼 드러보소  
그대 말씀 그만 두고 이 내 말을 들어보소

이 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내 또한 갑산 백성이라

이 따의셔 생장(生長)하니 이 때 일을 모를소냐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이 땅 일을 모르겠느냐

우리 조상 남등양반(南中兩班) 인사 급데(進仕及第) 연면(連綿)하여  
우리 조상 남중양반 진사급제 끊이지 않아

금당옥패(金章玉佩) 빗기 차고 시종신(侍從臣)을 다니다가  
금장옥패 비스듬이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금장식옥패를 비스듬이 차고 임금을 가까이 모시던 높은 벼슬을 하다가)

식기인(猜忌人)의 참소 입어 전가사변(全家徙邊) 하온 후의  
시기하는 이의 참소 입어 집안이 변방으로 귀양간 후에  
(시기하는 사람이 없는 죄를 꾸며 임금께 일러바치는 통에 온 집안이 변방으로 귀양을 가게 된 뒤에)

국내극변(國內極邊) 이 따의셔 칠팔대(七八代)을 사라오니  
나라의 꼬트머리 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선음(先蔭) 이어 하난 일이 읍등(邑中) 구실 첫채로다  
선조의 숨은 덕을 이어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드러가면 좌수별감(座首別監) 나가서난 풍헌감관(風憲監官)  
들어가면 좌수별감 나가서는 풍헌감관  
(어디를 가든 지방 관청에서는 우두머리만 해와서)

유사장의(有司掌儀) 채지나면 떤면 보와 사양터니  
유사장의에 지나지 않으면 체면 보아 사양하더니  
(사무나 예식을 맡아보는 일에 불과하면 체면을 보아 사양하곤 했는데)

\* 유사장의 : 조선 말기, 조정의 여러 가지 예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판임 벼슬을 이르던 말  
애슬푸다 내 시절의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서  
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의 모해를 받아  
(슬프다 내 시절에 와서 원수의 모함에 빠져 어려움에 빠지니)

\* 모해 : 나쁜 꾀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림.

군사강정(軍士降定)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허러나니

**군사로 강등되었단 말인가 내 한 몸이 헐어나니**

(군사로 떨어졌단 말인가 내 한 몸이 하찮게 되니)

\* 군사강정 : 군사의 계급으로 강등됨

좌우전후(左右前後) 수다일가(數多一家) 차차충군(次次充軍) 되거고야

**좌우전후 수다한 일가 차츰차츰 군역을 채웠구나**

(주변의 수많은 일가친척 대신 내가 차츰차츰 군역을 채우게 되었구나)

\* 충군 : 모자란 군역을 채움

누대봉사(累代奉祀) 이 내 몸은 할 일 업시 매와잇고

**누대봉사하는 이 내 몸은 하는 수 없이 매어 있고**

(대대로 조상 제사를 받드는 나는 하는 수 없이 매어 있고)

시름 업스 제족인(諸族人)은 자취 업시 도망하고

**걱정 없는 일가친척들은 자취도 없이 도망가고**

여러 사람 모단 신역(身役) 내 한 몸의 모도 무니

**여러 사람 모든 신역을 내 한 몸이 모두 물어내니**

(도망간 일가친척들의 군역과 부역을 나 혼자서 모두 물어내니)

\* 신역 : 조선시대 16세-60세까지 남성이 물어야 했던, 몸으로 치르는 노역

한 몸 신역 삼양오전(三兩五錢) 돈피이장(皮二張) 의법(依法)이라

**한 몸 신역 석냥 오전 돈피 두 장이 법이라**

(한 사람이 물어야 할 군역, 부역은 세 냥 오전이나 담비가죽 두 장을 내는 게 법이라)

십이인명(十二人名) 업난 구실 합(合)쳐보면 사십육양(四十六兩)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보면 사십여섯냥**

(도망간 일가친척 열두 명이 내야 할 신역까지 합하면 사십여섯 냥)

연부연(年復年)의 맛타무니 석송(石崇)인들 당할소나

**해마다 맞추어 물어내니 석송인들 감당하겠느냐**

(해마다 맞추어 물어내려니 진나라의 부자로 이름난 석송인들 감당하겠느냐)

약간 농사 전폐(全廢)하고 채삼(採蓼)하려 님산(入山)하여

**약간의 농사 접어두고 인삼 캐러 입산하여**

허항령(虛項嶺) 보태산(寶泰山)을 돌고돌아 차자보니  
허항령 보태산을 돌고돌아 찾아보니

인삼(人蔘)씩은 전혀 업고 오가(五茄)넙히 날 소긴다  
인삼 싹은 전혀 없고 오가피 잎이 날 속인다

할 일 업시 공반(空返)하여 팔구월(八九月) 고추(苦椒)바람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팔구월 고추바람

안고 도라 입산(入山)하여 돈피산행(狹皮山行)하랴 하고  
안고 도로 입산하여 담비가죽 산행하려고

백두산(白頭山) 등의 디고 분계강하(分界江下) 내려가서  
백두산 등에 지고 경계의 강 아래로 내려가서

살이껏거 누대 치고 익갈나무 우등놓고  
싸리 꺾어 누대 치고 이갈나무 우등 놓고

하나님께 축수하며 산신(山神)임게 발원하여  
하나님께 축수하고 산신님께 빌어서

물채출을 갓초 곳고 사망 일기 원망하되  
물채출을 갖추어 꽃고 좋은 운수 일기를 바라되  
(물, 채, 줄을 갖추어 꽃고 장사가 대박나기를 빌어보지만)

내 정성(精誠)이 불급(不及)한디 사망실이 아니붓내  
내 정성이 미치지 못하는지 사망실이 아니 붙네  
(내 정성이 미치지 못하는지 대박 운수가 안 붙는구나)  
\* 사망 :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운수

빈 손으로 도라서니 삼디연(三池淵)이 잘참이라  
빈 손으로 돌아서니 삼지연이 잘참이라  
(빈손으로 돌아서니 삼지연 호수에서 노숙을 해야 할 판이라)  
\* 삼지연 : 함북 무산에 있는 백두산 근처의 호수

납동(立冬) 지난 삼일후(三日後)의 일야설(一夜雪)이 사뭇 오니  
입동 지난 삼일 후에 밤중에 눈이 꽤 오니

\* 사뭇 : 사뭇-괘

대자 김회 하마 너머 사오보(四五步)을 못 옮길네  
다섯 자 깊이 이미 넘어 네뎃 걸음을 못 옮기네

\* 자-척: 약 33센티 가량

양딘(糧盡)하고 의박(衣薄)하니 압희 근심 다 떨티고  
식량이 바닥나고 옷이 얇으니 앞의 근심 다 떨치고

목숨 살려 욕심하여 디사위한(至死爲限)길을 허여  
목숨 구하려고 죽기 살기로 길을 헤아려

\* 디사위한 : 죽을 지경에 이름

인가처(人家處)를 차자오니 검천거이(鈐川巨里) 첫목이라  
인가 있는 곳을 찾아오니 검천거리 첫눈에 보이는구나

계초명(鷄初鳴)이 이윅하고 인가적적(人家寂寂) 한잠일네  
첫닭 소리가 그윅하고 인가는 적적하니 한창 자는 중이네

\* 이윅하다 : 그윅하다의 비표준어

집을 차자 드러가니 혼비백산(魂飛魄散) 반(半)주검이  
집을 찾아 들어가니 혼비백산 반시체가

언불출구(言不出口) 너머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의  
말도 못하고 넘어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에

송장 갖치 누엇다가 인사수습(人事收拾) 하온 후의  
송장같이 누웠다가 정신을 차린 후에

두 발긋흙 구버보니 열가락이 간대 업네  
두 발끝을 굽어보니 열 발가락이 간 데 없네

간신도리(艱辛調理) 생명(生命)하여 쇠게 실려 도라오니  
간신히 조리하고 목숨을 구하여 소에 실려 돌아오니

팔십당연(八十當年) 우리 노모 마도 나와 일던 말삼  
팔십 된 우리 노모 마중 나와 하시던 말씀

사라왔다 내 자식이 사망 업시 도라온들 모단 신역(身役) 걱정하라  
살아왔구나 내 자식이 수입 없이 돌아온들 모든 신역 걱정하겠느냐

전토가장(田土家庄) 진매(盡賣)하여 사십육양(四十六兩) 돈 가두고  
논밭과 집안살림 모두 팔아 사십 육 냥 돈 가지고

파기소(痍記所) 차자가니 등군파총(中軍把總) 호령하되

**파기소를 찾아가니 중군파총 호령하기를**

(병무청 갑산지청을 찾아가니 병역 담당자가 호통을 치기를)

- \* 파기소: 특정 인물의 용모, 신체 특징을 적은 기록이 있는 곳.
- \* 파총 : 조선시대 무관 벼슬)

우리 사도(使道) 분(分)부 내(內)의 각토군(各哨軍)의 데신역(諸身役)을 돈피외(狹皮外)에 밋디 말라  
우리 사또 분부 내에 각 초군의 여러 신역을 돈피 외는 받지 말라  
(우리 사또 분부하기를 각 병사의 여러 병역, 부역세로 담비가죽 외는 받지 말라 하셨다.)

관령녀차(官令如此) 디엄(至嚴)하니 하릴 업서 되하놋다  
관가 명령이 이같이 지엄하니 하는 수 없어 물러나는구나

돈 가지고 물러나와 원정(原情)디어 발괄하니

**돈 가지고 물러나와 억울한 사정을 글로 지어 하소연하니**

- \* 원정 :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함 \* 발괄 : 억울한 사정을 글과 말로 하소연함

물위번소(勿爲煩訴) 데사(題辭)하고 군노당교(軍奴將校) 채사(差使) 노아

**번거로운 소송이나 판결을 말라 하고 군노장교 보내어서**

- \* 번소 : 번거로운 소송 \* 제사 : 백성의 소장이나 원사에 대한 관부의 판결이나 지령
- \* 군노장교 : 군대 일을 맡아보던 관청에 속한 종

성화(星火)갓티 재촉하니 노부모(老父母)의 원행치당(遠行治裝)

**성화같이 재촉하니 노부모의 원행치장**

(불같이 재촉하니 늙은 부모가 먼길 떠날 때 드릴 행장(물건과 옷)으로)

팔승(八升) 네필(匹) 두엇더니 팔양(八兩) 돈을 비러밧고

**팔승 네 필을 두엇더니 여덟 냥 돈을 빌어서 받고**

(두엇던 팔승(수의용 옷감이 아닐까 짐작함)네 필을 여덟 냥 돈을 빌어서 받고)

- \* 승 : 피륙을 세는 단위

파라다가 채와내니 오십너냥(五十餘兩) 되거고야

**팔아다가 채워 내니 오십여 냥 되겠구나**

(돈피 26장을 마련하려고 노부모 수의를 팔고, 여덟 냥은 빌려서 채워내니 오십 냥 조금 넘는구나)

삼수각진(三水各鎭) 두로 도라 니십륙당(二十六張) 돈피(狹皮) 사니

**삼수와 각진을 두루 돌아 이십여섯 장 돈피 사니**

\* 삼수 : 함북 삼수군

십여일(十餘日) 장근(將近)이라 성화(星火)가땀 관가분부(官家分付)

**십여 일 가까이 왔네, 성화같은 관가 분부**

(십일이 다 지나가네 성화같은 관가 분부로)

차디(次知) 자바 가도왔네 불상할사 병(病)든 터(妻)난

**차지 잡아 가두었네 불쌍하다 병든 처는**

(대신 벌 받을 사람을 잡아 가두었네 불쌍하구나 병든 아내는)

\* 차지 : 대가를 받고 죄인 대신 형벌 받는 사람

영오둥(囹圄中) 의 더디여서 결항치사(結項致死) 하단말가

**감옥 안에 갇혀서 목을 매어 죽었던 말인가**

(대신 벌 받을 사람을 잡아 가두었네 불쌍하구나 병든 아내는)

\* 결항치사 : 목을 매어 죽음

내 집 문던(門前) 도라드니 어미 불너 우난 소리

**내 집 문전 돌아드니 어미 불러 우는 소리**

구텨(九天)의 사뭇하고 의 업산 노부모난

**구천에 사무치고 의지할 데 없는 노부모는**

불성인사(不省人事) 누어시니 괴덜(氣絶)하온 타시로다

**인사불성 누웠으니 기절한 탓이로다**

여러 신역(身役) 바친 후의 시체차자 장사하고

**여러 신역 바친 후에 시체 찾아 장사지내고**

사묘(祠廟) 뵈서 따희 뭇고 애끈토록 통곡하니

**사묘 모시고 땅에 묻고 애끓도록 통곡하니**

(조상 사당에 모시고 땅에 묻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통곡하니)

\* 사묘 : 고조,증조,조부모,부모 신위를 모신 사당

무지미물(無知微物) 못 도작(鳥雀)이 저도 또한 설니 운다

**무지미물 못 참새가 저도 또한 서럽게 운다**

(아무 것도 모르는 미물인 참새떼도 같이 서럽게 운다)

(도작-참새)

막중변디(邊知) 우리 인생(人生) 나라 백성(百姓) 되어나서

**변방 가운데 우리 인생 나라 백성 되어서**

(변방에 사는 우리같은 인생은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군사(軍士) 슬타 도망하면 화외민(化外民)이 되려니와

**군사 싫다 도망하면 화외민이 되려니와**

(병역,부역세 물어내는 군사 되기 싫다고 도망가면 임금 덕을 못 입는 사람이 되지만)

\* 화외민 : 임금의 덕을 입지 않은 사람

한 몸의 여러 신역 무다가 할 세 업서

**한 몸이 여러 신역 물다가 할 새 없어**

(한 사람이(혼자서) 죽거나 도망간 일가친척의 병역,부역세를 대신 물어내다가 다른 일이나 준비를 할 사이도 없이)

또 금년니 도라오니 유리무명(流離無定) 하노매라

**또 금년이 돌아오니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노라**

나라님께 알외자니 구둥천문(九重天門) 머러잇고

**나라님께 아뢰자니 아흠 겁 대궐문은 멀기만 하고**

노순(堯舜)갓갓 우리 성주(聖主) 일월(日月)갓티 밧그신들

**요순같은 우리 임금 해와 달같이 밝으신들**

불(不) 점(沾) 성화(聖化)이 극변(極邊)의 복분하(覆盆下)라 빗칠소나

**임금의 성화가 미치지 못하는 이 극한 변방의 엷은 동이 아래라 비치겠느냐**

(임금의 성화가 미치지 못하는 이 극한 변방지방의 엷은 동이 아래까지는 비치지 못한다. 즉, 이 변방 지방에는 임금의 성화가 미치지 못한다.)

\* 성화 : 임금이 덕행으로 백성을 바람직하게 변하게 됨

\* 복분 : 동이를 엷음

그대 또한 내 말 듯소 타관소식(他官消息) 드러보게

그대 또한 내 말 들어보소 타관소식 들어보게

북청부사 (北靑府使) 누실런고 성명(姓名)은 잠간 이저있네

북청부사 누구시던가 성함은 잠간 잊고 있네

허다군정(許多軍丁) 안보(安保)하고 백골도망(白骨逃亡) 해원(解冤)일래

많은 군정 편히 지키고 죽어 없어진 이 원한을 풀어주네

(북청부사가 군정을 제대로 실시하여 죽은 자까지 신역 징수대상에 넣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이 물게 했던 것을 바로잡아주니, 이를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라 했을 것으로 추정.)

- \* 군정 : 군역 등의 일을 맡은 행정 병역
- \* 백골도망 : 죽어 없어짐
- \* 해원 : 원한을 품)

각대초관(各隊哨官) 제신역(諸身役)을 대소민호(大小民戶) 분징(分徵)하니

각 부대 초관의 여러 신역을 크고 작은 민가에 나누어 징수하니

(각 부대의 초관이 책임져야 하는 100명분 신역을 북청의 민가에 골고루 징수하니.)

- \* 초관 : 조선시대의 종9품 무관직으로 초(哨)를 통솔하는 최하급장교로 약 100명에 달하는 1초를 책임지는 하급지휘관.
- \* 백골도망 : 죽어 없어짐
- \* 해원 : 원한을 품

만흐면 닷돈 푼수 저그며난 서돈이라

많으면 닷돈 정도 적으면 세 돈이라

인읍백성(隣邑百姓) 이 말 듯고 남부녀대(男負女戴) 모다드니

이웃 고을 백성 이 말 듣고 이고지고 몰려드니

- \* 남부녀대 : 남자는 지고 여대는 이고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님.

군정허오(軍丁虛伍) 업서지고 민호점점(民戶漸漸) 느러간다

군정허오 없어지고 민호 점점 늘어간다

- \* 군정허오 : 군적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없는 군사 행정

나도 또한 이 말 듯고 우리고을 군정신역(軍丁身役)

나도 또한 이 말 듣고 우리 고을 군정 신역

북청일례(北靑一例) 하여디라 영문의송(營門議送) 정(呈)탄말가

북청 예를 들어 관아에 상소를 바친단 말인가

(군정신역에 대한 북청의 예를 들어 관아에 상소를 바쳤으니)

- \* 의송 : 조선 시대, 백성이 고을 원의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였을 때 다시 관찰사에게 하는 상소





(내 사는 곳 신역이 북청같다면 부모와 이별하고 산소를 버리고 떠나겠느냐)

\* 이친기묘 : 부모와 이별하고 산소를 버리다

비내이다 비내이다 하나님께 비내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충군애민(忠君愛民) 북청(北靑)원님 우리 고을 빌이시면

충군애민 북청원님 우리 고을 들르시면

군등도탄(軍丁塗炭) 그려다가 헌폐상(軒陛上)의 올리리라

군정도탄 그려다가 헌폐 위에 올리리라

(군사행정의 비참함을 표현하여 헌폐 위에 올리겠다)

\* 도탄 : 진구렁이나 숯불같은 데 빠진대로 생활이 어렵고 비참한 상태

그대 또한 명연(明年) 잇때 처자동생(妻子同生) 거나리고

그대 또한 내년 이때 처자동생 거느리고

이 령노(嶺路)로 잡아들 재 곱때 내말 깨치리라

이 고개로 접어들 때 그때 내 말 깨우치리라

내 심등(心中)의 잇날 말삼 횡설수설(橫說豎說) 하려하면

내 마음에 있는 말씀 횡설수설 다하려면

내일(來日) 이때 다 지나도 반(半)나마 모자라리

내일 이때 다 지나도 반도 모자라리

일모(日暮) 하 충충(匆匆)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매라

해 지고 바삐 갈 길 머니 하직하고 가노라

# 누항사

(EBS수특 수록)

연대 : 조선 광해군 3년

지은이 : 박인로

갈래 : 내방 가사

주제 :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선비의 삶 / 현실의 부조화

특징 : 임진왜란 이후에 당면한 작가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음.

사대부와 농민, 양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그림.

## 호 | 작품 이해하기

이 작품은 광해군 3년(1611) 박인로의 나이 51세 되던 해에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생활하던 중, 한음(漢陰) 이덕형이 찾아와 누항 생활의 어려움을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로서, 4음보를 한 행으로 볼 때 약 77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난한 생활로 인한 추위와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웃집에 농우를 얻으러 갔다가 수모만 당하고 돌아와 세상일에 대한 체념적 심회를 읊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연을 벗삼아서 빈이무원하고 충효와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탈속의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 즉, 자신이 겪고 있는 궁핍하고 누추한 현실과 선비의 안빈낙도하는 삶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일상 생활의 언어를 폭넓게 사용하여 표현의 생동감과 구체성을 획득한 점이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유학자로서의 어려운 처지를 직시하고, 현실 생활의 빈궁함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조선 전기 가사가 보여 주었던 자연 완상(玩賞)의 세계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작품은 조선 전기 가사와 조선 후기 가사의 과도기적 작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호 | 전문 해석

어리고 우활(迂闊)호산 이 너 우희 더니 업다.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하늘이 부쳐 두고,

누항(陋巷) 키폴 곳의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셉히 되야,

서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하도 할샤.

설 데인 숙냉(熟冷)애 빈 배 식일 썬이로다.

생애(生涯) 이러흐다 장부(丈夫) 쫓을 옴길넌가.

안빈 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서,  
 수의(隨宜)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齟齬)하다.  
 7월히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뷔엿거든 병(瓶)이라 담겨시라.  
 빈곤(貧困)은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는가.  
 분의 망신(奮義忘身)해야 죽어야 말녀 너겨,  
 우탁 우랑(于橐于囊)의 줌움이 모아 녀코,  
 병과(兵戈) 오재(五載)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이서,  
 이시섭혈(履尸涉血)해야 몇 백전(百戰)을 지너연고.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라.  
 일노장수(一奴長鬚)는 노주분(奴主分)을 이젓거든,  
 고여춘급(告余春及)을 어너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로(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쫄논고.  
 궁경가색(躬耕稼穡)이 너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경수(莘野耕叟)와 농상경옹(隴上耕翁)을 천(賤)타 하리 업것마논, 아므려 갈고전들 어너 쇼로 갈  
 로손고.

어리석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는로는 이 나보다 다한 사람이 없다.  
 모든 운수를 하늘에다 맡겨 두고  
 누추한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 놓고  
 아침 바람과 저녁 비에 썩은 짚이 떨어감이 되어  
 세 홉 밥에 다섯 홉 죽(초라한 음식)을 만드는 데 연기가 많기도 하구나.  
 덜 데운 송농으로 고픈 배를 속일 뿐이로다.  
 살림살이가 이렇게 구차하다고 한들 대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안빈낙도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술병에 술이 담겨 있으랴.  
 가난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로다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 한들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의에 분발하여 내 몸을 잊어서 죽어서야 말겠노라고 마음 먹어  
 전대와 망태에 한 줌 한 줌 모아 넣고  
 전란 5년 동안에 죽고 말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 몇백 전쟁을 치루었던가.  
 내 한 몸이 (무슨) 겨를이 있어서 집안을 돌보겠는가  
 늙은 종은 하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는데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 줄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밭 가는 일은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한다지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에 맞는 줄을 알겠도다.  
 들에서 밭 갈던 은나라의 이윤과 진나라의 진승을 천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마는  
 아무리 갈려고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한기태심(旱既太甚)해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눅흔 논애 잠깐 긴 널비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를 반만칸 덕혀두고,

쇼 혼 적 듀마 호고 엄섬이 호는 말삼

친절(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 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기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참 아함이를 양구(良久)토록 하온 후(後)에,

어와 기 뉘신고 엄치(廉恥) 업산 닉옵노라.

초경(初更)도 거인딕 기 엇지 와 겨신고.

연년(年年)에 이러호기 구차(苟且)호 줄 알건마는

쇼 업슨 궁가(窮家)에 헤염 만하 왓삽노라.

공호니나 갑시나 주엄 즉도 호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름이,

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읍(玉脂泣)게 꾸어 닉고,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을 취(醉)토록 권(勸)호거든,

이러한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넉고.

내일(來日)로 주마 호고 큰 언약(言約) 호야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호니 사설이 어려왜라.

실위(實爲) 그러호면 혈마 어이호고.

헌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애 기 즈칠 썬이로다.

가뭇이 몹시 심하여 농사철이 다 늦은 때에  
서쪽 높은 눈에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길 위에 흐르는 물을 반쯤 대어 놓고는  
쇼 한 번 빌려 주마 하고 영성하게 하는 말을 듣고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도 없는 저녁에 허우적허우적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혼자 서서  
'에헴.' 하는 인기척을 꽤 오래도록 한 후에  
'어, 거기 누구신가?' '엄치 없는 저울시다.'  
'초경도 거의 지났는데 그대 무슨 일로 와 계신가?'  
'해마다 이러기가 구차한 줄 알지마는  
쇼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소이다.'  
'공짜로나 값을 받거나 간에 주었으면 좋겠지만  
다만 어젯밤에 건넌집 사는 사람이  
목이 붉은 수평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어 내고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갓겠는가?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하기가 어렵구료.'  
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헌 모자를 숙여 쓰고 측 없는 집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초라한) 내 모습에 개가 짓을 뿐이로구나.

와실(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와서 누어시랴.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식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너 한(恨)을 도우느다.

종조 추창(終朝惆悵)호야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소뉘는 벼보님도 도호세고.  
 가시 영긴 묵은 밭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반벽(虛堂半壁)에 슬덕업시 걸려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강호(江湖) 흥 꿈을 꾸언지도 오릿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저쳐다.  
 침피기옥(瞻彼淇澳)흔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디 흥나 빌려스라.  
 노화(蘆花) 깃픈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남지 업산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흥며 말라 흥랴.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령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스 전허 부러 말렸스라.  
 닉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 오랴.  
 인간(人間) 어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흥건마는  
 닉 생애(生涯) 이러호디 설은 쫓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흥 쫓이 온포(溫飽)애는 업노왜라.  
 태평천하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 흥리 닉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나의 한을 돕는구나.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없게 들리는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벼보임(밭)도 좋구나.  
 가시가 영긴 묵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으면만  
 빈 집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봄갈이도 거의 다 지났다. 팽개쳐 던져 버리자.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큰 꿈을 꾸 지도 오래더니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 슬프게도 다 잊었도다.  
 저 냇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하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이, 낚시대 하나 빌려 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의 벗이 되어  
입자 없는 자연 속에서 절로절로(근심 없이) 늙으리라.  
무심한 갈매기야, 나더러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는가 ?  
다들 이가 없는 것은 다만 이것(자연)뿐인가 생각하노라.  
보잘것없는 이 몸이 무슨 소원이 있으리오마는  
두세 이랑 되는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노라.  
나의 빈천을 싫게 여겨 손을 헤친다고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짓한다고 나아오라?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느냐?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고 하건마는  
내 생활이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라.  
한 대 광주리의 밥을 먹고 한 표주박의 물을 마시는  
어려운 생활을 이것도 만족하게 여기노라.  
평생의 한 뜻이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는 없노라.  
태평스런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을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는 것을 그르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가려 하노라.

# 저곡전가팔곡

(EBS수특 수록)

갈래 : 평시조, 연시조(전 8수)

성격 : 전원적, 사실적, 향토적

## 특징

- ① 대구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 함
- ② 설의법을 사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나타냄
- ③ 명령형, 청유형을 사용하여 농민들의 행동을 이끌어 냄
- ④ 계절의 변화와 하루 일과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⑤ 농사일에 직접 참여하는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함

주제 : 전원생활의 만족감과 초야에서의 농사일의 즐거움

이휘일 : 1661년(현종 2) 수석(水石)을 찾아 저곡(楮谷)에 옮겨 살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일찍부터 정주(程朱)의 성리학을 궁구하여 이해하지 못한 바가 없었으나,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는 성리학 공부를 중단하고 손자(孫子: 이름은 孫武)와 오자(吳子: 이름은 吳起)의 병서를 읽어 기정합변(奇正合變: 기습과 정공, 임기응변)의 묘리를 연구하고 산천의 험이(險易)와 주변국가의 정황을 조사하여 효종의 북벌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효종이 죽은 뒤에는 쓸모가 없음을 깨닫고 다시 『근사록』 · 『심경』 · 『성리대전』 · 『역학계몽』 · 『주자절요』 · 『퇴계집』 등을 연구하여 성리학의 일가를 이루었다.

## 호 | 작품 이해하기

작자가 45세 때 농촌의 풍경과 농민의 노고를 소재로 하여 지은 8곡의 단가이다. 그의 '서전가팔곡후'에,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나, 전원엔 오래 있어 농사일을 익히 알기에 본 것을 노래에 나타낸다. 비록 그 성향의 느리고 빠름이 절주와 격조에 다 맞지는 않지만, 마을의 음탕하고 태만한 소리에 비하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곁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익혀 노래하게 하고 수시로 들으며 스스로 즐기려 한다(존재집 권4)."라고 하여, 이 시조의 저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



◆ 원풍 - 속세를 떠난 사대부의 풍년에 대한 기원

세상(世上)의 버린 몸이 견무(畎畝)의 늘거가니

[논밭의 이랑]

밭것일 내 모르고 호는 일 무스일고

[바깥일, 속세의 일]

이 중(中)의 우국성심(憂國誠心)은 년풍을 원호노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세상에 버림받은 몸이 시골에서 늙어 가니  
바깥일은 내가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고  
이 가운데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된 마음은 풍년  
이 들기를 원하는구나.

◆ 춘(봄) - 상부상조의 농사

농인(農人)이 와 이로되 봄 왓네 바티 가새

[농부의 말 인용]

앞집의 쇼보잡고 뒷집의 짜보내네

[쟁기]

[따비]

[상부상조]

두어라 내집부티 호랴 늣호니 더욱 도타.

[배려, 상부상조]

농사짓는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봄철이 왔으니  
밭에 갑시다.  
앞집의 쟁기를 빌려 밭일을 하고 뒷집의 따비를 빌려 밭일을 하네.  
두어라 내 집 농사부터 하라. 남부터 먼저 하니 더욱 좋구나.

◆ 여름(하) - 고생한 노동의 결과

여름날 더운 적의 단사히 부리로다

[달아있는 땅이] [비유]

밭고랑 미자호니 썸홀너 짜희듯네

[힘겨운 농사일]

어스와 립립신고(粒粒辛苦) 어니 분이 알으실고

[농사일의 고됨]

여름날 더운 때에 뜨거워진 땅이 불과 같구나.  
밭고랑을 매려고 하니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지네.  
아아. 곡식 낱알 하나하나에 농부의 수고로움이 맺혀 있는 것을 어느 분이 알 것인가?

◆ 가을(추) - 스스로 농사 지은 만족감

가을희 곡석 보니 뉘도도 뉘세고

[만족감]

내힘의 닐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

이밭기 천사만중(千駟萬鐘)을 부러 무슴허리오

[부귀영화]

[안분지족]

가을에 곡식을 바라보니 좋기도 좋구나.  
내 힘으로 키운 것이니 먹어도 맛있구나.  
이밖에 높은 벼슬아치들을 부러워해 무엇 하겠는가.

◆ 겨울(동) - 다음 해를 위한 농사 준비

밤으란 스흠 쪼고 나죄란 썬을 부여

[샷자리를]

초가(草家)집 자바미고 농기(農器)점 츠려스라.

[추스려라, 손질하여라]

내년(來年)희 봄온다 허거든 결의 종사(從事)허리라

[마음과 힘을 다함]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풀을 베어  
초가집 지붕을 잡아매고 농기구를 손보아라.  
내년이 봄이 온다고 하면 바로 농사일을 시작하리라.

◆ 새벽 - 부지런한 하루 농사 과정

새배 빛나자 백설(百舌)이 소리 허다

[밝아오자] [온갖 새들]

일거라 아히들아 밧보러 가자스라

[일어나거라]

밤스이 이슬 귀운에 얼마나 길었노고 허노라

[농작물이]

먼동이 트자 집을 나서니 지빠귀가 노래한다.  
일어나거라 아이들아 밧을 돌보러 가자구나.  
밤사이 이슬을 머금어 얼마나 자랐을까 하노라.

◆ 낮 - 농부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

보리밥 지어 담고 도트랏 길을 하여

비굴는 농부(農夫)들을 진시(趁時)에 머겨스라

[제 때에]

아히야 흥 그릇 올려라 친(親)히 맛바 보내리라

[애민정신]

보리밥 지어서 담고 명아주로 국을 끓여  
배끓는 농부들을 제 때에 먹이어라.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직접 맛을 본 후 보내  
야겠다.

◆ 저녁 -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즐거움

서산(西山)애 히 지고 풀 곶테 이슬난다

호미를 둘러메고 돌딛여 가자스라

[달빛을 등 뒤에 받고]

이 중(中)의 즐거운 쫓을 날러 무슴히리오

[전원 생활의 즐거움]

서산에 해는 지고 풀 끝에 이슬이 맺힌다.  
호미를 둘러메고 달빛을 받으면서 돌아오자꾸  
나.  
이런 가운데의 즐거운 뜻을 말하여 무엇 하겠느냐.

# 속미인곡

[EBS미수록]

갈래 :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정격 가사

성격 : 서정적, 충신연주지사(忠信戀主之詞)

형식 : 대화체, 3(4) · 4조, 4음보의 연속체

제재 : 입에 대한 그리움

주제 : 임금을 그리는 정

의의 : ‘사미인곡’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백미로 꼽힘.

순 우리말을 절묘하게 구사함.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가사 작품임.

연대 : 선조 18 ~ 22년(1585 ~ 1589)

출전 : 『송강 가사』 성주본

작가 : 정 철

## 호 | 작품 이해하기

이 작품은 EBS 수능특강에 수록된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사미인곡’에서 못다한 심회를 더 발전시켜 읊은 것이다. 송강 정철이 동인(東人)의 탄핵을 받고 고향인 전라남도 창평에 있을 때 지은 연군 가사로, ‘사미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지극한 연군(戀君)의 심정을, 입을 이별한 여인의 애달픈 심정에 의탁하여 표현하였는데, 제목에 나타나 있는 ‘미인(美人)’은 바로 임금을 의미한다. ‘사미인곡’에 비해 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어휘의 구사와 시정(詩情)의 간절함이 더욱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속미인곡’은 ‘사미인곡’과 같이 서정적 자아의 독백으로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체로 진행시켰다는 데에서 참신하다. ‘서사 - 본사 -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두 선녀(仙女)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임(임금)의 은총에서 멀어진 화자(작가)가 그리움과 자책(自責)과 애절한 심정을 천상(天上)에서 내려온 선녀의 신세에 가탁(假託)함으로써 더욱 절실한 표현미를 살려 내고 있다.

원 문	현대어 해석
<p>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天顔上尙 白晝玉帛京경을 엇디하야 離離別別하고,                      히 다 저문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갑녀의 물음]</p>	<p>저기 가는 저 부인, 본 듯도 하구나.                      백옥경(임금 계시는 대궐)을 어찌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가?</p>
<p>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혼가마논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락야 교탁야 어즈러이 구똥편디,                      반기시논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칭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 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뉘마티 짜혀시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허랴.                      설위 플터 헤니 造造物물의 타시로다.                      [을녀의 대답]</p>	<p>아, 너로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보오.                      내 얼굴과 태도가 님이 사랑하기에 부족하지만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시기에                      나도 입을 믿어 댄 생각이 전혀 없어,                      교태을 부리며 어지럽게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다르신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 보니,                      내 몸의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는가?                      서러움 풀어내 헤아려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서사 - 임과 이별한 사연]</p>
<p>글란 칭각 마오.                      [갑녀의 위로]</p>	<p>그렇게 생각마오.</p>
<p>릭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뉘 ㅈ툄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春春寒한 ㅈ고熱열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秋秋日일 冬冬天天은 뉘라셔 뉘섯논고.                      粥粥早조飯飯반朝朝夕夕석 뉘 네와 ㅈ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을녀 - 임에 대한 걱정]</p>	<p>마음 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 입을 모시어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날이 몇 날일꼬?                      이른 봄날의 추위와 여름철의 무더위는 어떻게 보내                      시며 가을 겨울은 누가 모셨는가?                      죽조반과 아침 저녁 진지는 예전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p>

원 문	현대어 의역
<p>           님 다히 消消息식을 아므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툼 올라.            내 마음 둘 덕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외희 올라가니,            구름은 ㄱ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산川천이 어둡거니 日日月월을 었디 보며,            厓咫尺척을 모략거든 千천리리를 ㅼ라보랴.            출하리 물ㄱ의 가 ㅼ길히나 보자 하니,            ㅼ람이야 물결리아 어등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딴 가고 빈 ㅼ만 걸렸느니.            江江川천의 혼자 서서 지는 ㅼ를 구버보니,            님 다히 消消息식이 더욱 아득헌더이고.            [을녀 -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한 노력]         </p>	<p>           님 계신 곳 소식을 알려고 노력하니,            오늘도 거의 저물었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곳이 없다.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            나무 바위 등을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니, (공간의 이동)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또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운데 해와 달을 어찌보며,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리를 어찌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 가서 ㅼ길이나 알아보려 하니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걸렸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본사 -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한 노력과 그리움]         </p>
<p>           茅모詹詹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半半壁벽靑靑燈등은 늘 위하야 ㅼ갓느고.            오락며 ㄱ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力역盡진하야 ㅼ좁을 잠간 드니            精精誠誠성이 지극하야 ㅼ의 님을 보니,            玉玉 ㄱ툼 얼굴이 ㅼ반이나마 늘거세라.            ㅼ음의 머근 말슴 슬ㄱ장 ㅼ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情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鷄계聲성의 ㅼ은 었디 ㅼ듯던고.            [을녀 - 임에 대한 걱정 및 그리움]         </p>	<p>           초가집 찬 잠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오니            벽의 등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가?            산을 오르내리며 강가를 헤매며 방황하니            잠깐 동안 힘이 빠져 선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옥과 같이 곱던 얼굴이 반이나 ㅼ었구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실천 아뢰려고 하였더니            눈물이 ㅼ아지니 말인들 어찌 하며            정을 다 못하여 목 조차 메어 오니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본사 - 임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p>
<p>           어와, 虛허事스로다. 이 님이 어딴 간고.            결의 니러 안자. 窓창을 열고 ㅼ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ㅼ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셔            님 ㅼ신 窓창 안히 ㅼ드시 비최리라.            [을녀 -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            각시님 ㅼ이야ㄱ니와 ㅼ준 비나 되쇼셔.            [갑녀 - 충고]         </p>	<p>           아, 허사로다. 님이 어디 갔는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만 나를 따를 뿐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낙월이 되어            님 계신 창문 안에 흰하게 비치리라.            각시님, 달보다 ㅼ은 비나 되십시오.            [결사 - 임을 향한 영원한 사랑]            * 달 : 소극적 사랑            * ㅼ준 비 : 적극적 사랑         </p>

# 서경별곡

## (EBS미수록)

갈래 : 고려가요(속요)

성격 : 서정적, 애상적

제재 : 임과의 이별

주제 : 이별의 정한(情恨)

### ✓ '대동강'이 지니는 의미

: 공간적 배경(임과의 이별 공간)

- 대동강 너른디 몰라셔 :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와 떠나는 임과의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
- 배 타 들면 것소리이다 : 화자의 두려움(임이 화자를 떠나 다른 여인과 만날 것) 암시

### ✓ 핵심 시어 정리

'질삼뵈' -> 여인의 모든 것, 생업

'사공' -> 애꿎은 원망의 대상(임에 대한 우회적 원망)

'곶' -> 임이 만날 새로운 여인, 화자의 질투의 대상

## 호 | 작품 이해하기

이 작품은 여성적 목소리로 이별의 정한을 읊은 전체 3연의 고려 가요이다. 1연에서는 생활의 터전인 서경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연모의 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2연에서는 '구슬'과 '끈'을 통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고 있다. 3연에서는 임을 싣고 떠나는 뱃사공을 원망하며 이별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임의 변심을 우려하는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시의 화자는 고전 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극적이고 인종의 미덕을 간직한 여성들과는 달리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p>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닷곤딕 아즐가 닷곤딕 소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b>질삼뵈</b>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괴시란딕 아즐가 괴시란딕 <b>우러곰 좃니노이다.</b>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p> <p>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긴히든 아즐가 긴히든 그츠리잇가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즘은 히를 아즐가 즘은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p> <p>대동강(大同江) 아즐가 ㉠ 대동강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훈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럼난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널 빅에 아즐가 널 빅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          빅 타들면 아즐가 빅 타들면 <b>것고리이다</b>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링디리</p> <p style="text-align: right;">- 서경별곡</p>	<p>서경이 서울이지만          새로 닦은 곳인 소성경을 사랑합니다마는          길쌈하던 베(여성의 생업)를 버리고서라도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span style="float: right;">[적극적 사랑]</span></p> <p>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사랑에 대한 믿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습          니까?  <span style="float: right;">[끈=믿음]</span></p> <p>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아내가 음란한 줄도 몰라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span style="float: right;">[꽃 : 다른 여인, 사공 : 원망의 대상]</span></p>
---	--



# 사설시조 모음

## 01 | 붉가버슨 아해들리

---

붉가버슨 兒孩(아해) | 들리 거미줄 테를 들고 기천으로 왕래하며,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으로 내왕하며,

- \* 붉가버슨 : 발가벗은
- \* 아해 | 들리 : 아이들이
- \* 거미줄테 : 잠자리를 잡기 위해 긴 막대기 끝을 둥글게 만들어 거미줄을 감은 것

붉가송아 붉가송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브로나니 붉가송이로다.  
‘발가송아 발가송아, 저리가면 죽는다. 이리 오면 산다.’고 부르는 것이 발가송이로다.

- \* 붉가송아 붉가송아 : 발가송이야(고추잠자리를 부르는 말)
- \* 브로나니 : 부르는 사람이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헿가 헿노라.

아마도 세상 일이 이런 것인가 하노라.

- \* 이러헿가 : 붉가송이(벌거숭이 아이들)가 붉가송이(고추잠자리)를 잡는다. 서로 믿을 수 없는, 약육강식의 각박한 세태를 해학적으로 풍자

---

**초장** : 붉가버슨 아해(모해자)

**중장** : 붉가송아(모해를 받는 자)와 붉가송이 (모해하는 자)

**종장** : 서로 謀害(모해)하는 세상사

어린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와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역설적인 상황이다. 잠자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로부터 멀리 도망쳐야 하기 때문이다.

---



### 03 |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나모도 바히들도 업슨 뵈게 췌친 가토리 안과,

나무도 바위도 없어 몸을 숨기기 곤란한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 바히돌 : 바윗돌, 바히를 전혀의 뜻으로 보는 이도 있음.

\* 췌친 : 쫓긴                      \* 가토리 : 까투리, 암꿩

\* 안과 : 마음과

大川(대천) 바다 한가온대 一千石(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뚫  
대도 것고 치도 싸지고 브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게 췌자진 날에 갈 길은 千里(천 리)  
만 리 나믄디 四面(사면)이 거머어득 저뭇 天地寂寞(천지적막) 가치노을 썬느디 水賊(수적)  
만난 鄒沙工(도사공)의 안과

넓고 큰 바다 한 가운데 곡식을 일천 석이나 실은 배가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고 뚫줄도  
끊어지고 뚫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이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 남았는데 사방이 어둑어둑 저물고 천지가 적적하고 막막하여 까치노을이  
뜬 가운데 해적을 만난 처지에 있는 사공 우두머리 마음과

\* 대천바다 : 넓고 큰 바다

\* 농총 : 뚫대에 달린 줄

\* 근코 : 끊어지고

\* 것고 : 꺾어지고

\* 치도 : 키도

\* 뒤섯게 : 뒤섞여

\* 췌자진 : 자욱한

\* 나믄디 : 남았는데

\* 사면이 : 사방이

\* 거머어득 : 검고 어둑하게

\* 저뭇 : 저물고

\* 천지적막 : 천지가 적적하고 막막함

\* 가치노을 : 폭풍우를 예고하는 저녁놀, 또는 사나운 파도

\* 수적: 해적

\* 도사공 : 뱃사공의 우두머리

엇그제 님 여힌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ㅎ리오.

엇그제 입을 이별한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는가.(내 마음이 훨씬 더 참담하  
다.

\* 여힌 : 이별한

\* ㄱ을ㅎ리오 : 비교하겠는가

입을 이별한 뒤의 절박한 심정을 비교와 과장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으로 '삼한(三恨)' 또는 '삼안(三內)'이라고도 한다. 절대 절명의 위기에 빠진 까투리의 암담한 심정과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사공의 모습을 제시한 다음, 자신의 마음은 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중장에서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극한적 상황을 나열하면서 내용면으로는 점층적 구성으로 절박감을 더해 주고 있다.

사설시조의 특징인 폭로성과 개방성에서 고찰해 본다면, 서정적 자아의 상황과 까투리, 도사공의 상황은 각각 독립된 상황으로서 당시 민중이 처한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기발한 착상에 비교, 과장, 점층, 열거 등의 수사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감정 이입의 기법까지 사용함으로써 높은 문학성을 얻고 있는 작품이다.

## 04 |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그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덕들아 동난젓 사오. 저 장수야, 네 황후 그 무엇이라 외치느냐. 사자.

(여러 사람들이여 동난지 사시오. 저 장수야 네 물건을 무엇이라 외치느냐, 사자.

- \* 동난지 : 게젓
- \* 황후 : 잡화, 상품
- \* 무서시라 웨는다 :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齋(청장) 으스스하는 동난지이 사오.

(걸은 딱딱하고 속에는 연한 살이 있으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했고, 앞뒤로 가는 작은 다리가 8개, 큰 다리가 두 개 있으며, (씹으면) 청장이 아으스스하는 소리가 나는 동난지 사시오.

**외골 내육, 양목이 상천, 전행 후행, 소아리 팔족, 대아리 이족, 청장 아으스스하는 동난지이 사오.**

- \* 외골내육 : 걸은딱딱하고 속에는 살이 있음
- \* 상천 : 하늘을 향함
- \* 전행후행 : 앞으로 가고 뒤로 감
- \* 소아리 : 작은 다리
- \* 대아리 : 큰 다리
- \* 청장 : 진하지 않은 묽은 장, 여기서는 '게 뱃속에 있는 게장'을 말함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

**장수야, 하 거북이 외치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

\* 거북이 웨지 :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게젓이라고 하는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를 동원하여 術學的(현학적)으로 표현하여 외치고 다니는 게젓 장수를 빈정대고 있다.

---

서민적 감정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 있는 이 노래는 게 장수와의 대화를 통한 상거래의 내용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중장에서 '게'를 묘사한 대목은 절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표현으로 사설시조의 미의식인 해학미(諧謔美) 내지는 희극미(劇美)를 느끼게 하며, '으스스하는'과 같은 감각적 표현은 한결 현실감을 더해 준다. 또한 중장에서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이란 표현을 통해, '게젓'이란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를 쓰는데 대한 빈정거림을 살펴 볼 수 있다.

---

## 05 | 두꺼비 꾀리를 물고

---

두꺼비 꾀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 \* 터비 : 비
- \* 힘 : 두엄, 거름 무더기, 웅덩이에 풀, 짚 따위를 모아서 썩힌 거름
- \* 치드라 : 위로 향하여 달려, 위쪽으로 달려 올라가)

건넛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썩 잇거늘 가슴이 금즉혀여 풀떡 뛰어 내뺏다가 두힘 아래 잣  
바지거고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기에 가슴이 섬뜩하여 철쩍 뛰어 내뺏다가 두힘  
아래 자빠졌구나.

- \* 백송골 : 흰 송골매, 날쌔 매의 일종
- \* 금즉혀여 : 끔찍하여
- \* 풀떡 : 힘을 모아 가볍게 뛰는 모양
- \* 내뺏다가 :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 \* 잣바지거고 : 자빠졌구나 ‘-거고’는 감탄사임

모쳐라 놀넝 널식만정 에혈질 번혀괘라.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다쳐서 멍들 뺨하였구나**

⇒ 황급히 피하려다 실수를 하고도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모습을 우화적인 수법으로 익  
살스럽게 표현.

- \* 모쳐라 : 아차(감탄사)
- \* 널식만정 : 나였기에 망정이지
- \* 에혈질 : 멍이 들, 瘀血(어혈:멍)질
- \* 번혀괘라 : 뺨하였도다)

---

두꺼비, 파리, 백송골 등을 의인화하여 약육강식(弱肉強食)하는 인간 사회와 양반들의  
비굴하고 허세에 찬 모습을 풍자한 노래이다. 여기에서 ‘두꺼비’는 ‘양반 계층’을 ‘파  
리’는 ‘서민 계층’을, 그리고 ‘백송골’은 ‘강한 외부 세력’을 상징한다. 따라서 양  
반(두꺼비)이 평민(파리)을 괴롭히다가 강한 세력(송골매)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황급  
히 피하려다 실수를 하고도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모습을 우화적 수법으로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당시 특권층인 양반들의 횡포에 시달림을 받는 민중들은 그것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폭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풍자적인 수법을 통해 지배 계층을 꼬집고 희화화시켜  
울분을 해소시켰던 것이다.

---

## 06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내고 싶다 이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고모장지 세 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동저귀 수돌저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푹닥  
바가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고무래 장지 가는 살의 창, 들 창문, 열창문에 암돌쩌귀 수골쩌귀, 문고리에 꺾는 쇠를,  
큰 장도리로 푹딱 박아서, 이 나의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 \* 고모장지 : 고무래 들창, 고무래 장지
- \* 세살장지 : 가는 살의 장지
- \* 들장지 : 들어 올려서 매달아 놓게 된 장지
- \* 열장지 : 좌우로 열어 젖히게 된 장지
- \* 돌저귀 : 돌쩌귀
- \* 암돌저귀 : 문설주에 박는 구멍난 돌쩌귀
- \* 수돌저귀 : 문짝에 박는 돌쩌귀
- \* 비목걸새 : 문고리에 꺾는 쇠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불가 하노라.

가끔 몹시 가슴이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 볼까 하노라.

- \* 잇다감 : 가끔
- \* 여다져 : 여닫아

---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근심에서 오는 답답한 심정을 짝 박혀 있는 방으로 나타내고, 거기에 창문을 달아서 답답한 심정을 풀고 싶다는 표현은 매우 기발한 着想(착상)이다. 구체적인 생활 언어 사용, 문의 종류를 장황하게 열거함으로써 답답한 심정을 절실하고도 다소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은 다분히 해학적이기도 하지만, 비애와 고통을 어둡게만 그리지 않고 이처럼 웃음을 통해 극복하려는 우리 나라 평민 문학의 한 특징이 엿보인다.

---

## 07 | 창밖기 어른어른

---

창밖기 어루어른커늘 님만 너겨 펄떡 뛰여 쭉 나서 보니,  
창 밖에 무엇이 어른거리기에 입으로만 여겨 펄떡 뛰어서 급히 나가 보니

님은 아니 오고 으스름 달빛체 열구름이 날 속이여고늘  
입은 오지 않고 어스레한 빛에 지나가는 구름이 날 속였구나

맞초아 밤일세망정 흥여 남 유일 번 흥여라.  
마침 밤이었기에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한 일이었다.

---

연대 : 미상

갈래 : 사설시조

성격 : 연모가, 해학적

제재 : 임

주제 :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

## 08 | 한숨아 세한숨아

---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한숨아, 가는 한숨아 네 어디로 들어오느냐

고모장조 세솔 장조 등 장조 열 장조에 암돌적귀 수돌적귀 비목걸시 썩닥 박고 크나큰  
좁을쇠로 숙이숙이 촛엿논디 屏風(병풍)이라 덜컹 접고 簇子(족자)라 덕디골 말고,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무래 장지문, 가는 살 장지문, 들장지문, 열장지문에 암돌쩌귀와 수돌쩌귀 배목걸쇠  
로 등을 똑딱 박고, 커다란 자물쇠로 깊이 깊이 채워 놓았는데, 병풍처럼 덜컹 접고,  
족자처럼 댁대골 말아 가지고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 \* 고모 장조 : 'T'자 모양의 고무래 장지
- \* 세솔 장조 : 가는 살로 만든 장지
- \* 들 장조 : 들어 올려서 매달아 놓게 된 장지
- \* 암돌적귀 : 구멍이 뚫린 돌쩌귀
- \* 수돌적귀 : 구멍에 끼우는 돌쩌귀
- \* 비목걸시 : 문고리를 거는 쇠
- \* 숙이숙이 : 깊숙이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좁 못 드러 흐노라.

편 일인지 네가 오는 날 밤이면 잠 못 들고 있노라

---

연대: 미상

갈래: 사설시조

성격: 愁心(수심)가, 해학적

표현: 열거, 수사의문법

제재: 한숨

주제: 삶의 고뇌

---



## 09 | 갓나희들이

---

갓나희들이 여러 層(층)이오래

松骨(송골)미도 갖고 줄에 안즌 저비도 갖고 百花園裡(백화원리)에 두루미도 갖고 綠水波瀾(녹수파란)에 비오리도 갖고 싸히 펍 안즌 쇼로기도 갖고 석은 등걸에 부형이도 갖데.

그러도 다 각각 님의 스랑인이 皆一色(개일색)인가 흐노라.

여인들이 여러 층이더라.

송골매 같기도 하고, 줄에 얹은 제비 같기도 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한 뜰에 두루미 같기도 하고, 푸른 물결 위에 비오리 같기도 하고, 땅에 펍 주저앉은 솔개 같기도 하고 썩은 등걸에 얹은 부엉이 같기도 하네.

그러도 다 각각 임의 사랑을 받으니 모두 뛰어난 미인인가 하노라.

- \* 갓나희들이 : 여인들이
- \* 層(층)이오래 : 층이더라
- \* 松骨(송골)미 : 매의 일종. 해동청(海東靑도)
- \* 綠水波瀾(녹수파란) : 푸른 물결
- \* 百花園裡(백화원리) : 온갖 꽃들이 만발한 뜰 안
- \* 비오리 : 오리과에 속하는 물새
- \* 쇼로기 : 솔개
- \* 등걸 : 줄기를 잘라낸 나무의 밑동
- \* 스랑인이 :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
- \* 皆一色(개일색) : 모두 뛰어난 미인

---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세태를 경계하고 새로운 애정관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여인들 중에는 미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미인이 아닌 사람도 다 제각기 임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들 모두가 남이 잘 모르는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외모가 좀 부족하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이 노래는 은밀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초장에서는 여인들이 다양하다고 전제하고, 중장에서는 여인들을 여러 종류의 새에 비유한 뒤, 종장에서는 그 다양한 여인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임에게 각각 사랑받는 여인들이니 모두 미인이라고 하고 있다. 여인들에 대한 다양한 비유와 해학미가 넘치는 표현으로 사실시조의 멋을 한껏 살린 작품이라 하겠다.

---

## 10 |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 개갯치 알미오라.

뽀운 님 오며는 꼬리를 뽀뽀 치며 썩락 누리 썩락 반겨서 내뽀고 고운 님 오며는 뽀발을 버뽀버뽀 뽀르락 나으락 캉캉 쯔져서 도라가게 한다.

썩뽀뽀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개를 십여 마리나 기르되 이 개처럼 알미운 놈이 있겠느냐.

미운 님이 오면 꼬리를 뽀뽀 치며 올려뽀고 내려뽀며 반겨서 내뽀고 고운 님이 오면 뽀발을 버티고 서서 뽀로 뽀러났다 앞으로 나아갔다 하며 캉캉 쯔져서 돌아가게 한다.

뽀뽀 많이 남아서 썩뽀뽀 그릇그릇 썩여도 너에게 먹일 성 싶으냐.

\* 여라문이나 : 열이 좀 넘게

\* 알미오라 : 알미우라

\* 썩락 누리 썩락 : 뽀어오르기도 하고 내리뽀기도 하고

\* 버뽀버뽀 : 버티고 서 있는 모양

\* 뽀르락 : 뽀로 뽀러나기도 하고

\* 나으락 :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 너 머길 줄이 이시라 : 너를 먹일 리가 있으라

---

사랑하는 입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해학적 표현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기에 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기르는 개가 미운 임은 반겨 맞고 고운 임은 쯔져서 쯔져 버린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입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죄 없는 개한테로 옮겨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소박한 서민적 해학의 묘미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하겠다. 또 입을 내썩는 개의 동작을 묘사한 부분이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실감을 높인 것도 이 노래의 큰 장점이라 할 것이다.

---

## 11 | 개야미 불개야미

---

개야미 불개야미 존등 부러진 불개야미

앞발에 疔腫(정종) 나고 뒷발에 종귀난 불개야미 廣陵(광릉) 심재 너머 드러 가람의 허리를 ㄱ르 물어 추혀 들고 北海(북해)를 건너댓 말이 이셔이다. 님아 님아.

온 놈이 온 말을 헉여도 님이 짐작헉쇼셔.

개미, 불개미, 허리가 부러진 불개미

앞발에 피부병 나고 뒷발에 종기가 난 불개미가, 광릉 샘고개를 넘어 들어가서,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 물어 추켜 들고 북해를 건너갔다는 말을 있습니다. 임이어.

백 사람이 백 가지 말을 한다 해도 입께서 짐작해 주십시오.

\* 개야미 : 개미

\* 疔腫(정종) : 피부병

\* 廣陵(광릉) : 지명(地名)

\* 가람 : 갈범. 칙범. 호랑이

\* 北海(북해) : 바다 이름

\* 온 : 백(百). 모든

\* 존등 : 등. 허리

\* 종귀 : 종기. 큰 부스럼

\* 심재 : 고개 이름

\* 추혀 들고 : 추켜 들고

\* 건너댓 : 건넜다는

---

남을 모함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교훈적 내용을 개미를 제재로 하여 희화적(戲畫的)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삼인 성호(三人成虎 : 세 사람이 짜면 범이 거리에 나왔다는 거짓말도 사실처럼 될 수 있다는 뜻)란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면 대개 그 말을 믿게 되는데, 이 작품은 그러한 위험성을 풍자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노래의 핵심은 종장이다. ‘온 놈’의 ‘온 말’은 다른 사람의 참언(讒言)을 뜻하는 것으로, 종장에서 상처투성이고 보잘 것 없는 개미가 호랑이를 물고 북해를 건넜다는 허무맹랑함을 통하여 ‘온 놈’이 ‘온 말’을 한다 해도 거짓일 수 밖에 없음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종장의 ‘님’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으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님’은 임금으로 가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종장의 문구(文句)는 사설시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

## 12 | 꺾도리 저 꺾도리

---

꺾도리 저 꺾도리 어엿부다 저 꺾도리,  
어인 꺾도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節節(절절)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우  
러 네어 紗窓(사창) 여윈 즘을 슬쓰리도 씌오논고야,  
두어라 제 비록 微物(미물)이나 無人洞房(무인동방)에 내 뜻 알리는 너뿐인가 흐노라.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저 귀뚜라미

어찌 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슬픈 소리로 저  
혼자 계속 울어, 비단 창문 안에 살풋 든 잠을 잘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이나 외로워 잠 못 이루는 내 마음을 알 이는 너 뿐인가 하노라.

\* 꺾도리 : 귀뚜라미

\* 어인 : 어찌 된

\* 자른 : 짧은

\* 節節(절절)이 : 마디마디

\* 우러 네어 : 계속 울어

\* 紗窓(사창) : 여인이 거처하는 방

\* 여윈 : 살풋 든

\* 슬쓰리도 : 알뜰히도, 잘도

\* 씌오논고야 : 깨우는구나

\* 無人洞房(무인동방) : 외로운 여인의 방

---

긴긴 가을 밤에 상사(相思)의 일념으로 잠 못 이루는 여인의 애절한 외로움을 실감 있  
게 그려낸 작품이다. 처절한 고독과 그리움을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으로 귀뚜라미  
에 의탁하여 섬세한 필치로 잘 형상화하였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임이 그리워 전전반측(輾轉反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  
인이다. 그런데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밤새도록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가 가뜩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인의 얇은 잠마저 알뜰하게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 결국 이 노래  
는 긴긴 가을 밤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귀뚜라미를 통해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 13 | 님이 오마 헝거늘

님이 오마 헝거늘 저녁밥을 일 지어 먹고

中門(중문) 나서 大門(대문) 나가 地方(지방) 우희 치드라 안자 以手(이수)로 加額(가액)하고  
오논가 가논가 건넌 山(산) 바라보니 거머핋들 셔잇거늘 져야 님이로다. 보션 버서 품에 품  
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빅님의 님빅곰빅 천방지방 지방천방 존 디 므른 디 골희지 말고 위  
령총장 건너가서 情(정)옛말 헝려 하고 겻눈을 흘깃 보니 上年(상년) 七月(칠월) 사흔날 골  
가 벅긴 주추리 삼대 솔드리도 날 소겨거다.

모쳐라 밤일식만정 횡혀 낮이런들 늣 우일 번 헝괘라.

임이 오겠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가서, 손을 이마에 대고 임이 오는가 하여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무희뚝한 것이 서 있기에 저것이 틀림없는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옆치락뒤치락 허둥거리며 진 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우  
당탕탕 건너가서, 정이 넘치는 말을 하려고 겻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7월 3일날 꺾질을  
벗긴 주추리 삼대가 알뜰하게 나를 속였구나.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하였도다.

- |                                       |                                       |
|---------------------------------------|---------------------------------------|
| * 오마 : 오겠다고                           | * 中門(중문) 나서 : 중문을 나와서                 |
| * 大門(대문) 나가 : 대문으로 나가                 | * 地方(지방) : 문지방                        |
| * 以手(이수) : 손으로써                       | * 加額(가액)하고 : 이마에 대고                   |
| * 오논가 가논가 : 오는지 가는지                   | * 거머핋들 : 검은 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 * 곰빅님의 님빅곰빅 : 옆치락뒤치락, 또는 연거푸          | * 존 디 : 질척한 곳                         |
| * 천방지방 지방천방 : 허둥거리는 모습                | * 골희지 : 가리지                           |
| * 므른 디 : 마른 곳                         | * 겻눈을 흘깃 보니 : 겻눈으로 흘깃 보니              |
| * 위령총장 : 급히 달리는 발소리                   | * 골가 벅긴 : 발가벗긴                        |
| * 上年(상년) : 작년                         | * 주추리 삼대 : 씨를 받느라고 그냥 발머리에 세워 둔 삼의 줄기 |
| * 주추리 삼대 : 씨를 받느라고 그냥 발머리에 세워 둔 삼의 줄기 | * 모쳐라 : 마침, 그만두어라                     |
| * 모쳐라 : 마침, 그만두어라                     | * 밤일식만정 : 밤이기에 망정이지                   |
| * 늣 우일 번 헝괘라 : 웃길 뻔하였도다               |                                       |

임을 보고 싶은 애타는 마음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임이 오신다는 소식에 잠시도  
앉아 있지 못하고 허둥지둥 마중을 나갔다가 주추리 삼대에게 속고 나서 멧쩍어하는 모습이  
과장적이면서도 해학적인 묘사로 형상화되어 있다.

형식면에서 초장과 중장은 가사투(歌辭套)의 사설조로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길게 묘  
사함으로써 산문 정신의 반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종장은 사설 시조에서 보여 준 전  
형적인 문구와 형식을 갖추고 있다. 서민들의 진솔한 생활 감정과 욕구가 아무런 가식 없이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사설 시조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14 | 바람도 쉬어 넘는 고기

---

바람도 쉬어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기,  
山眞(산진)이 水眞(수진)이 海東靑(해동청) 보르미도 다 쉬어 넘는 高峯(고봉) 長城嶺(장성령) 고기,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송골매, 보라매 같은 매들도 도중에 쉬어야 넘을 만큼 높은 장성령 고개,  
그 높은 고개 너머에 임이 왔다고 하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넘어가리라.

- \* 쉬어 넘는 : 쉬면서 넘어가는
- \* 山眞(산진)이 : 산에서 자라 여러 해 묵은 매. 또는 새매
- \* 水眞(수진)이 : 손에서 길들인 매. 또는 새매
- \* 海東靑(해동청) : 송골매
- \* 보르미 : 보라매
- \* 高峯(고봉) : 높은 봉우리
- \* 長城嶺(장성령) 고기 :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고개
- \* 아니 한 번도 쉬어 : 한 번도 쉬지 않고

---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진솔하게 그리면서도 약간은 과장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평시조에 비해 발랄하고 동적(動的)인 느낌을 주는 이 노래는 바람이나 구름, 매들까지도 쉬어야만 넘을 수 있는 높은 고개를 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넘어가겠다는 내용으로, 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

## 15 | 뽕가버슨 아해 | 들리

---

뽕가버슨 兒孩(아해) | 들리 거미줄 테를 들고 기천(川)으로 往來(왕래)하며,  
뽕가송아 뽕가송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부로나니 뽕가송이로  
다.

아마도 世上(세상) 일이 다 이러훈가 흐노라.

뽕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을 왕래하면서,

“뽕가송아 뽕가송아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 고 하며 부르는 것이 뽕가  
송이로다.

아마도 세상일이 모두 이런 것인가 하노라.

\* 뽕가버슨 : 뽕가벗은

\* 兒孩(아해) | 들리 : 아이

들이

\* 거미줄 테 : 잠자리를 잡기 위해 긴 막대기 끝을 둥글게 만들어 거미줄을 감은  
것

\* 뽕가송아 : 뽕가송이야(잠자리를 부르는 말)

\* 부로나니 : 부르는 것이

---

어린 아이가 잠자리를 잡는 단순한 놀이에 풍자성을 가미하여 서로 속고 속이며 모  
해(謀害)하는 세태를 풍자한 작품이다.

어린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서 잠자리가 자기들에게로 와야 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역설적 상황이다. 잠자리가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로부터 멀리 도망쳐  
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조는 이처럼 서로 믿을 수 없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각박  
한 세태를 해학적으로 풍자하여, 그 속에 인생의 오묘한 진리와 생활 철학을 안으  
로 간직하고 있다. 여기에서 ‘뽕가버슨 아해(兒孩) | 들’ 은 ‘모해하는 자’ 를, ‘뽕  
가송이’ 는 ‘모해받는 자’ 를 의미한다.

---